

力道山

1. 씬 긴자의 뒷골목 (밤)

자막: 1963년 12월 8일

바람에 훑날리는 눈송이들이 허공에서 춤을 추다가
클럽 뉴 라틴 쿼터의 네온간판 위로 떨어지자마자 사르르 녹아 버린다.
클럽 입구에 정차하는 60년산 일본식 고급 승용차들에서 내리는 성장한 손님들.
클럽 안에서 흥겨운 재즈 음악이 흘러 나오면,

2. 씬 클럽 뉴 라틴 쿼터 (밤)

피크타임에 걸맞게 손님들로 북적대는 홀안.
신명나게 섹스폰을 불어 제끼는 에비하라 케이이치로 밴드의 반주에 맞춰
무대 위에선 흑인 여자 코러스 "포어 랫즈" 가 재즈 스탠다드 넘버를 노래하고 있고
그 아래 홀에는 진한 화장에 파마머리를 한 여자들과 신사복의 남자들이 춤추고 있다.
카메라가 클럽 안의 흥겨운 풍경을 잡다가 어느 한켠의 화장실 쪽으로 다가가면
벌컥! 하고 문이 열리며 야쿠자풍의 짧은 머리를 한 사내 하나가 다급하게 뛰어나와 입
구 쪽으로 사라진다.

잠시 후, 다시 화장실 문이 열리며 나타나는 건장한 체구의 사내.
짧게 잘라 올백으로 넘긴 파마머리에 세련된 양복 차림의 사내는 홀의 분위기와는 어
울리지 않게 잔뜩 인상을 쓰며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마침 흑인 코러스의 노래가
끝나자, 무대 위의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화장실에서 나온 이 사내에게 주목한다.

사회자: 오늘 우리 뉴 라틴 쿼터 클럽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도산 선생이십니다.

사회자의 말과 함께 비틀거리던 건장한 체구의 사내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강렬한 빛을 의식하곤 약간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손으로 쓸
어 올리곤 애써 걸음을 바로 하며 무대 위로 오른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사양하는 몸짓을 보이다가 못이기는 척 마이크를 받아 쥐
면, 쏟아지는 박수 소리.
역도산은 박수소리에 하얀 이빨을 드러내는 소년 같은 미소로써 화답을 한다.
까무러칠 것 같은 미소에 여자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역도산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흥미진진하다.

역도산: (보다가) ... 이 클럽에 살인 청부업자가 있습니다.

그 말에 억자하게 웃는 사람들.

역도산: (웃으며) 하하, 역시 아무도 안 믿으시는군요! ... 나 역도산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다는 남자들이 술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면 제 말을 좀 전해주시요. 그렇게 역도산을 보내고 싶으면, 먼저 프로레스 입장권부터 사라고. 입장권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이라고. ... 링에서 만남시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지르면, 역도산이 웃음으로 답례하고 마이크를 흑인 여가수에게 넘긴다. 일행들과 클럽 입구로 총총히 사라지는 역도산. 다시 시작되는 밴드의 음악. 노래를 시작하려던 흑인 여가수가 끈적한 자신의 손의 감촉에 놀라보면 조명에 비춰 반짝이는 마이크에 피가 흥건하다.

3. 씬 달리는 차안(밤)

차창에 부딪치는 눈발. 거친 숨소리에 맞춰 상승하는 음악. 시뻘건 피로 점점 물들어 가는 역도산의 하얀 와이셔츠.

수행원: (다급하게 기사에게) 마에다 병원으로 가자

역도산: 바보자식! 역도산이 칼에 찔렸다고 광고라도 할 셈이냐?

수행원: 선생, 상처가 큼니다.

역도산: 호들갑떨지마! 별 거 아냐.

수행원: 빨리 지혈해야 됩니다.

역도산: (망설이다가) 산노 병원으로 가. 거긴 아는 사람들이니까.

수행원: 산노? ... 거긴 산부인과 아녘니까?

역도산: (단호하게) 딱 병원은 안가.

다급하게 U-턴을 하는 역도산의 차.

배를 움켜쥔 역도산의 손위로 피가 새어 나오고, 거세진 눈발이 차창을 때려 댄다.

4. 씬 링 (타이틀이미지)

자동차의 엔진소리와 겹쳐지는 함성소리 속의 고속촬영.

화면을 가르지른 로프. 피가 로프의 밑바닥에 고이고 방울이 되어 특 떨어지면

화면은 멀리 링의 반대편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역도산에게로 초점이 맺힌다.
역도산, 피범벅이 된 야차같은 얼굴을 들고 거대한 산이 움직이듯 일어난다. 링의 중앙
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더니 가라데의 수도를 들어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날
린다. 역도산의 몸에서 튕겨져 나오는 땀방울과 핏방울이 허공으로 흩어지며 타이틀이
떠오른다. (F. O)

5. 씬 스모 협회 건물 밖 (낮)

자막: 1950년 9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유리창이 깨지면서 길바닥에 떨어져 뒹구는 의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피하고
어떤 남자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는 건물 앞에는 <스모협회>라는 간판이 붙어있다.

6. 씬 스모협회 안 (낮)

다시 한번 의자가 천정에 날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전등을 깨부순다.
거구의 스모 선수 몇 명과 머리가 허연 협회 임원들이 바퀴벌레처럼 피하는데,
<순위표>라고 적혀있는 서류를 밟은 채 사무실 책상 위에 딱 버티고 서는 역도산.

역도산: 이유가 뭐냐?

상투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 위로 흘러내린 역도산. 의자를 휘두르며 선수들과
임원들에게 덤벼든다. 단 한명에게 쫓겨다니는 거구의 남자들. 역도산, 자기 주위에 있
는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진다. 임원들의 핏말, 각종서류, 상자 등이 날아가는데, 어떤
액자 앞에서 동작을 멈추고 망설이는 역도산. 액자 속에는 역대 요코즈나의 사진이 들
어있다. 아직까지는 스모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있어서 일까?
그 틈을 타 역도산의 몸을 잡는 스모선수.

스모선수: 세끼와께! 제발 고정하세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역도산, 사정없이 요코즈나의 액자로 스모선수의 머리를 내려친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내.
사람들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도망치고
씩씩거리며 서있는 역도산, 흘러내린 머리카락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헝클어진 역도산의 머리카락 사이로 총혈된 눈이 반짝인다.
책상 구석에 숨어있던 임원의 멍살을 들어올리며,

역도산: 말해봐! 내 이름이 왜 순위 편성에서 빠졌지?

임 원: (떨리는 목소리로) 그거야 자네가 더 잘 알지 않나?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던 역도산, 이윽고 임원을 잡은 손에서 터진 흥선처럼 힘이 빠짐을 느낀다. 말의 의미를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다.

7. 씬 다마노우미의 집 (다른 날, 낮)

술에 불과해진 얼굴의 역도산이 가족 쇼파에 앉아있다.

들어서는 거구의 스모 선배, 다마노우미.

다마노우미: 잘하는 짓이다. 니가 지금 대낮부터 술이나 처먹을 때야?

역도산: (판짓으로 쇼파 판지며) 선배, 이건 언제 들여놓으셨습니까?

다마노우미: 하라다가 머리를 이십바늘이나 꼬맸어. 협회에서 가만있지 않겠대.

역도산: (선문답 하듯) 이런 응접세트는 얼마나 하죠?

다마노우미: 이 바보 자식아. 내 말을 듣고는 있는거냐? 넌 제명될 수도 있어.

역도산: 나도 하나 들여놓고 싶은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다마노우미: (어이없어하면서도)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디스토마나 치료해. 그래야 스모를 할 거 아냐.

역도산: (빈정대며) 다시 스모를 한다구 이런 쇼파 하나 살수 있겠습니까? 헛고생하다가 디스토마에나 걸리는거죠. 협회가 난 땡전 한 푼 안줬지만, 하라다는 협회에서 병원비를 대주겠죠? 갠 순수하니까.

다마노우미: ... 무슨 소리야?

역도산: 요코즈나(스모의 챔피언)는 순수한 일본인만 되는 거라면서요?

다마노우미: ... 바보자식아 그래두, 상투라도 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널 알아주는거야. 상투가 없어 봐, 누가 널 인정하겠어?

독기어린 눈으로 다마노우미를 노려보는 역도산.

역도산: 별 볼일 없는 조센징이란 말이죠?

다마노우미: (역도산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헛기침을 해댄다)

역도산: 선배, 돈이나 좀 빌려주십시오.

다마노우미: 뭐하게?

역도산: 이런 쇼파 하나 살려구요.

다마노우미: (벌떡 일어나) 나가! 이 바보 자식아. 넌 이제 제명이야!

E) 어디선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의 육중한 엔진소리가 들려온다.

8. 썬 거리 (낮)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달리는 역도산, 뒷자리에 실려있는 소주 박스가 덜그덕거린다.
전후의 황량한 거리 풍경을 등 뒤로 보내며 달리는 역도산,
무너진 벽돌담 아래에서 강릉 속의 밥을 먹는 꼬질꼬질한 아이들을 본다.
이때, 아이들 옆으로 미군 짚차 한 대가 지나가며 흙탕물을 튀긴다.
짚차의 미군들은 깔깔대며 옆자리의 팡팡걸(양공주)들에게 입을 맞추더니 그냥 간다.
흙탕물 범벅이 된 아이들을 본 역도산,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이며 짚차를 쫓는다.
짚차 곁으로 점차 다가가는 역도산, 소주 한병을 집더니 짚차 앞유리창에 던진다.
유리창이 박살나자 비틀하며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에 들이박는 짚차.
역도산, 미군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꺾유를 먹이고 그대로 도망친다.

9. 썬 역도산 집 (밤)

바닥에 펼쳐진 케쇼마와시 (스모 선수가 의식에서 착용하는 띠로 만든 예복)
금실로 정성스레 자수된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必勝'
글자 위를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가는 여자의 고운 손.
손의 주인은 띠실을 한줄 한줄 가지런히 편 후, 뒤로 조금 물러나 무릎 꿇고 앉는다.
아야다. 그녀는 손질이 만족스럽게 됐는지 미소를 머금는데,
이 때, 드르륵 문이 거칠게 열린다.
아야를 쳐다도 보지 않고, 부엌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며 역도산.
술이 많이 취했다. 아야가 뒤따른다.
역도산, 넓은 어깨를 실룩거리며 천장 문을 거칠게 열어 제끼자 그릇이 와르르 쏟아져
박살이 난다. 그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좁은 부엌의 살림살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지
고 나뒹군다. 카메라는 핸드 헬드로 그런 역도산의 모습을 잡는다.
부엌칼을 찾아낸 역도산,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역도산의 심상치않은 모습을 본 아야, 다급하게 역도산을 붙잡는다.

아야: 장사, 왜 그러세요?

역도산: (자기머리의 상투를 쥐고 흔들며) 이 따위 것, 잘라 버리겠어.

거세게 역도산을 만류하는 아야가 역도산의 손에서 칼을 뺏는다.

역도산: 칼 이리내.

아야: 못줘요.

아야가 부엌에서 나와 방쪽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역도산에게 잡히고 만다.

그러면서도 손에서 칼을 내놓지 않는 아야.

아야: (애원하듯) 장사! 이리저 마세요. 스모를 그만 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장사의 꿈이 뭐예요?

역도산, 험하게 부름땀던 눈에서 힘이 빠지며, 아야를 붙잡으려던 손을 툭 떨어뜨린다.

역도산: 아야, 나... 억울해... 너무... 억울하다. 인정받고 있다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

역도산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역도산: 스모를 못하면 난 이제 뭐지?

아야, 흐느끼는 역도산을 껴안는다. 큰 키의 역도산에게 아야가 매달린 꼴이지만, 오히려 역도산은 아야에게 몸을 기대고 있다. 조그만 여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역도산. 아이를 달래듯 역도산의 넓은 등을 다듬거리는 아야.

아야: 잘 될 께예요. 장사, 앞으로 잘 될 께예요.

여전히 흔들리는 역도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는 아야.

벽에 걸린 액자 속의 사진이 그런 두 사람을 내려다본다.

사진 속에선 상투를 튼 역도산이 아야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다. (F.O)

10. 시모노세키 항, 아침

자막. 1940년

덩치는 남산만 하지만 아직 앳된 얼굴을 한 16세의 소년이 정복을 입은 일본 순사의 뒤를 졸졸 쫓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의 역도산, 김 신락 이다.

소년은 보이는 것들이 너무 신기해 순사의 걸음을 간간히 놓친다.

뽕뽕! 신락 앞으로 지나가던 승용차가 비키라고 크락손을 울린다.

깜짝 놀라는 신락. 승용차를 피해 다시 걷기 시작하면 그의 눈앞에 일장기를 흔드는 군중들과 그 너머로 출정키 위해 열병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총검이 아침 햇살에 번쩍이고, 대열의 맨 앞에 선 기마대의 말들이 푸르르 허연 입김을 토해낸다.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위용을 갖춘 일본 군대를 넋이 나간 듯 바라보는 김신락.

순사: 저게 바로 위대한 황군이다.

신락: 밥은 먹을 수 있는거죠?

신락의 머리를 매설게 쥐어박는 순사. 다시 걷기 시작한다.

빠른 걸음으로 순사의 뒤를 쫓는 신락. 보통이를 든 지지분한 손이 까칠하게 텃다.

11. 씬 니쇼노세끼베야 도장

거대한 덩치의 스모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모래판 위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리테(스모에서의 밀치기)를 날리거나,

고함을 지르며 달려가 서로의 육체를 부딪쳐 안고 힘을 겨룬다.

거구의 사내가 있는 힘껏 몸을 부딪히자 휘청하는 연습용 나무기둥.

주변을 보느라 얼이 빠진 김신락의 주위가 어두워진다. 거구의 관장이 만든 그림자다.

김 신락 앞에 우뚝 서서 신락을 내려다보는 관장.

순사: 조선에서 데리고 온 씨름꾼 김신락입니다.

자신을 보는 관장에게 고개 숙여 절하는 신락.

주변에 흩어져있던 선수들이 신락을 본다.

고개를 든 신락의 눈에 관장의 머리 위로 걸려있는 목판글씨가 보인다.

“씨름은 곧 힘(力)의 길(道)이다”

12. 씬 유곽 앞 거리, 밤

2층 창가에 게이샤들이 모여있다. 바깥 풍경을 보며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는다.

아래에선 신락을 비롯한 신입생들이 어깨등무를 하고 선배들의 구호에 따라 앉았다 일

어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선배들은 두툼한 겨울옷에 목도리까지 했지만, 신입들은 얇은

훈도시 하나만을 입고 있다. 몽둥이를 든 다무라가 신입들 앞으로 나선다.

다무라: 스모의 길은 무사의 길보다 험하다. 연습도중 병신이 되거나 죽는 놈

도 있다. 도망치려면 지금 밖에 기회가 없다. 갈테면 가라. 잡지않겠다.

게이샤들 앞에서 한껏 품을 잡는 다무라. 거들먹거리며 신입들 중 한 명 앞으로 간다.

다무라: 좋아. (몽둥이를 신입의 어깨에 툭 걸치고) 너한테 스모란 뭐냐?

신입1: 예, ... 심신을 단련하고, ... 에 또, 단련하여 ... 천황폐하의 은덕에 죄금

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다무라: 좋은 말이다! (다음 신입으로 이동하여) 넌 왜 스모를 하려고 하나?

신입2(하마유): 저, 저는 스모계의 미야모토 무사시가 되고 싶습니다.
다무라: 무사시라! (하마유의 어깨쪽지를 몽둥이로 치며) 꿈 깨! 임마!

재미있어하는 게이샤들의 웃음소리에 다무라는 한껏 흥이 난 채, 신락 앞에 선다.

다무라: 그래, 너한테 스모란 뭐냐?
신락: 잘 먹고 잘 사는 길입니다.
다무라: 뭐?
신락: 요코즈나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겁니다.

다무라를 비롯한 선배들, 어이없다는 듯 키득거리며 웃는다.
2층 창가의 게이샤 중 한 명이 장난스레 “장사! 멋있어요!”라고 소리치자, 다른 게이샤들이 함께 웃음을 터트린다. 이를 악다물고 추위와 조소를 버티는 신락.
그런 신락을 보는 다무라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13.썸 니쇼노세끼베야 도장에서의 날들

도호 위는 훈련하는 스모 선수들로 가득하지만, 신락은 보이지 않는다.

<주방-화장실>

끓는 술에서 나오는 뿌연 김 속에서 창코 요리를 준비하는 신락과 하마유.
상투를 묶기 위해 머리를 기르고 몸을 불러 제법 스모 선수티가 나는 신락.
밖에서 그런 신락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짹째 뛰어가면,
화장실 문이 열리고 거구의 다마노우미가 신락을 향해 등을 들린다.
가지고 있던 휴지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정성스레 비비는 신락.
무릎을 꿇고 앉아, 다마노우미의 거대한 엉덩이 밑으로 손을 대서 밑을 닦아준다.

<식당>

들러 앉아 창코요리를 먹고 있는 스모 선수들. 목욕을 한 뒤라 머리들이 젖어있다.
머리 손질하는 “도카야마”가 선수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상투를 틀어준다.
순위가 높은 선수가 다 먹고 자리를 뜰 때까지 다음 순위의 선수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대기하고 서 있다. 신락과 하마유는 선배들 시중드느라 바쁜 모습이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따라 의식을 하듯 식사하는 선수들,
어느덧 다른 선배들은 자리를 뜨고, 바로 위의 선배 다무라만 남는다.
꼬르륵 소리를 내는 배를 움켜잡고 차례를 기다리는 신락과 하마유를 훑어 보는 다무라. 식사를 마치고 손가락을 내려놓더니, ‘카악’하고 가래침을 끌어올려 뱉고 냄비에 뱉는다. 꼬우냐는 듯 자신들을 보는 다무라를 향해 비굴한 미소를 짓는 신락과 하마유.
신락과 하마유의 인사를 받으며 다무라가 기세등등하게 밖으로 나간다.

바닥을 드러낸 창코요리. 밑바닥을 흰히 드러낸 밥통. 그나마 남은 밥에 붙은 찌꺼기들.

하마유: 제기랄! 개 돼지도 아니고...

신락, 묵묵히 밥통을 박박 긁은 후, 냄비바닥을 훑어 건진 국물을 밥에 뿌려 먹는다.

하마유: 거지가 우리보단 낫겠다. (주머니에서 부적주머니를 꺼내보며) 우리 엄마가 이걸 보면 당장 돌아오라고 할텐데.

맛있다는 듯 우적우적 먹는 신락을 경멸하듯 보는 하마유.

신락: (하마유의 밥그릇을 보고) 안먹을꺼지?

신락이 밥그릇을 뺏어 자신의 입으로 가져 가려하자,
하마유도 결사적으로 밥그릇을 뺏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다.
그런 하마유를 어이없다는 듯 보는 신락. 다시 먹기 시작한다.
얼마 안되는 음식을 다투듯 게걸스럽게 먹는 두 소년.

14. 씬 요정정원. 후원자 닷다의 피로연 (밤)

비내리는 정원, 실내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밝은 음악소리와 함께 흘러나온다.
아름다운 색깔의 기모노를 입은 게이샤들이 여주인의 인솔 하에 누군가를 마중나간다.
양복을 입은 40대 초반의 닷다가 관장과 아즈마후지를 대동하고 들어온다.
일제히 닷다에게 절하는 게이샤들. 고개를 든 여주인이 닷다를 보고 깜짝 놀란다.
닷다는 양복 윗도리가 없어 비에 흠뻑 젖은 와이셔츠 차림이다.

여주인: (사정을 짐작하고) 회장님 덕분에 또 누군가가 비를 피했군요.

관장: 아직도 양복 맞추실 때 윗도리는 두벌씩 하십니까?

닷다: 그냥 버릇입니다.

여주인, 다시 한번 깊이 고개숙여 절한 후, 정중한 태도로 안으로 모신다.

한편, 심부름꾼들 사이에 끼어있던 신락, 뒷사람들이 마루로 올라가자, 그들이 벗어놓은 신발과 계다를 가지런히 놓기 시작한다.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등을 적시는 가운데, 신발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내는 신락.
이 때, 허리를 숙이고 움직이던 신락의 눈에 기모노 밑으로 살짝 드러나는 얇은 종아리가 보인다. 흙탕물에 젖은 작은 발이 계다를 벗는다. 종아리의 주인이 자신의 계다를 직접 놓기 위해 고개를 숙이다 신락과 눈이 마주친다. 미소짓는 게이샤 아야.

신락, 눈이 부신 듯 고개를 숙이고 만다. 흙탕물에 젖은 종아리가 보이자, 자신의 웃소

매로 닦아준다. 처음에는 뒤로 살짝 피하던 아야도, 가만히 신락의 손길을 받아들인다. 이때, 아야를 부르는 소리가 안 쪽에서 나고, 아야가 종종걸음으로 방안으로 들어간다. 고개를 들어 아야의 뒷모습을 보는 신락. 문이 닫혀 아야가 사라진 다음에도 시선을 들리지 못한다.

15.썬 요정 연회실 안 (밤)

50여명의 게이샤들이 등그랴게 모여있다. 사미센 가락이 쾅겨지자 게이샤들은 한송이 꽃이 만개한 듯 짙 물러나고, 연회석에 앉은 닛다와 아즈마후지, 관장을 뒤로한 채, 여주인이 연회석 앞으로 나온다.

여주인: 백화의 으뜸 모란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시절에, 닛다 회장님께서 스포선수 아즈마후지를 후원하는 결연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주인의 말이 끝나자, 사미센가락이 다시 울려 퍼지고 게이샤들의 춤이 시작된다.

닛다회장: 아즈마후지를 위해서!

닛다, 술잔을 들어 건배를 하고는 웃 속에서 미리 준비한 지전 다발을 꺼낸다.

닛다회장: 오비(*기모노를 입을 때 뒤에 묶는 보)를 풀어라!

회장이 돈다발을 게이샤들에게 뿌리자, 게이샤들, 환성의 소리를 지르며 오비를 풀고 걸음을 벗는다. 연회실 안에서 태양이 뜨고 지는 듯, 게이샤들이 입은形形色색의 기모노가 한꺼풀씩 벗겨지면 세상의 온갖 꽃들이 피었다가 사라지고, 속옷이 드러나면 온갖 꽃들이 다시 피어난다. 기모노 위에 아름답게 그려진 모란꽃, 벚꽃, 철쭉꽃,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 위로 기러기가 날아 다니고, 속옷이 드러나면 또 새로운 문양의 꽃들과 새들이 춤을 춘다. 역도산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이 그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다.

다무라: 아즈마후지 자식, 오늘 밤엔 게이샤들을 이불처럼 덮고 자겠군!

후배선수: 선배님도 빨리 랭킹에 오르셔서 후원자를 만나셔야죠.

다무라: 바보자식, 닛다 회장같은 후원자를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옆에서 듣고있던 역도산이 닛다를 쳐다본다. 호탕하게 웃고있는 닛다의 모습.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역도산의 눈은 사미센을 켜고있는 아야로 향한다.

호화로운 게이샤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청순함과 아름다움이 아야에게는 있다.

16. 씩. 도장, 깊은 밤

어둠과 정적에 쌓인 도호판 앞에 선 신락과 하마유.
신락이 성큼 도호판 위로 올라서는 반면, 하마유는 주위를 살피느라 바쁘다.
연습생들에게는 도호판 위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 연습마저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다.
신락이 눈으로 재촉하지만, 망설이며 오르지 못하는 하마유.

하마유: 선배들한테 들키면 우린 죽음이다. 죽음.

신락,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더니, 모래를 한 움큼 쥐어본다.
씩 웃더니 하마유에게 뿌린다. 이어서 하마유를 향해 선 채 시코 의식을 한다.

신락: 나도 아즈마후지처럼 후원자를 만나 게이샤를 이불처럼 덮고 자겠다.

하마유도 흥이 올랐는지 부적을 바지춤에 소중하게 넣은 뒤, 도호판 위로 올라온다.
금기를 깨는 소년들은 상기된 채, 그토록 하고싶었던 선수 흥내를 내며 서로 맞붙는데,
어디선가 박수소리가 들려온다.
깜짝 놀란 두 소년이 돌아보면, 다무라가 비열한 웃음을 짓고 서있다.
서둘러 도호판에서 내려오는 두 소년.

다무라: 아냐, 아냐. 그대로 있어. 후배들이 이렇게도 시합이 하고 싶다는데, 선
배인 내가 도와줘야지.

<시간경과>

도호판 위의 신락과 하마유, 양쪽에서 맹렬하게 달려와 박치기를 한다.
다무라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손을 쓰지않고 몸만으로 상대를 바깥으로 내치기 위해
애쓰는 두 소년. 사정없이 밖으로 내쳐진 하마유, 깨진 코에서 피를 흘리며 다시 올라
온다. 휴식없이 계속 다그치는 다무라, 시합이 아닌 골육적이고 처절한 열차레가 이어
진다. 두 소년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서로의 몸을 확대한다. 신락에게 힘과 근성이 부치
는 하마유가 매번 나가떨어지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열차레에 신락도 서서히 지쳐간다.
이윽고, 완전히 나가떨어지는 하마유, 신락을 보는 눈에 원망과 체념이 엇갈린다. 그런
친구를 본 신락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자, 다무라가 신락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린다.

다무라: 벌써 지쳤나? 더 해봐. 시합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도호판 위에 길게 뻗은 신락. 자신의 몸을 차며 욕설을 지껄이는 다무라의 목소리가 점
차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매질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다.
도장에 걸린 현판이 평소보다 더욱 커다랗게 보인다.
'스모는 곧 힘(力의 길(道)이다'

17. 씬 거리

아아가 인력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다. 그녀의 흔들리는 시야 안으로 앞쪽에 걸어가는 한 소년의 뒷모습이 보인다.

창코요리에 쓸 재료들이 든 봉지를 들고, 무를 깨들어 씹으며 걸어가는 신락.

어제 다무라에게 받은 흑독한 체벌로 얼굴 이곳저곳이 멍들어 있다.

인력거는 신락을 스쳐지나가 십여 걸음 앞에 멈춰선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인력거를 보는 신락, 인력거에서 나오는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진다. 아아에게 멍든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창피해서이지만, 꼭 그 때문만은 아니다.

아아: 니쇼노세끼베야의 장사시죠?

역도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아: 본 기억이 나요.

신락, 더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한 후, 황급히 뛰어간다.

그런 신락을 보던 아아, 미소짓더니 큰 소리로 신락을 불러세운다.

아아: 장사, 밥 먹었어요?

18. 씬 요정 안

얼마 전 아즈마후지 후원 파티가 열렸던 바로 그 방이다.

신락은 백 여명이 접대를 받는 넓은 연회실의 최고 상석에 혼자 앉아있다.

불안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보는 신락.

부드러운 편안함이 오히려 불편하다. 불을 켜지 않아 어두운 실내, 창호지 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온 햇살이 다다미 위에 자리를 잡는데, 먼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이따금 들려온다.

신락, 마치 자신이 정말 아즈마후지가 된 듯한 가벼운 흥분을 느낀다.

그 때 나무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아아가 음식 상을 가지고 들어온다.

간소하나 잘 차려진 음식. 신락, 먹기를 주저하다가 아아가 재차 권하자 게걸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아아,

아아: 이름이 뭐예요.

신락: 킹! 다들 그렇게 불러요.

아아: 어디서 왔어요?

신락: ... 아주 멀리서.

아야: (혼잣말로) 나랑 비슷하다!

신락: (쳐다본다)

아야: 나두 멀리서 왔거든요. 나가사키, 들어봤어요?

신락: (고개를 흔든다) ...이름이?

아야: 아야. 넋다 회장님이 낙적해 주셔서 지금은 감사봉사 중이에요.

신락: 그럼...

고개를 끄덕이는 아야. 그런 아야를 쳐다보는 신락.

두 사람. 알 수 없는 등질감을 느낀다.

신락: 넋다 회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야: 회장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동네에선 게이샤로 살 수 없어요. 제가
틀기론 스모 선수들도 비슷하다고 하던데.

신락: 다른 선수들은 어떤 지 몰라도, 난 달라요.

자리에서 일어서는 역도산,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선다.

신락: (아야를 뚫어져라 보다) 저, 부탁이 있는데. ... 저, 들어주기 힘든 그런...

아야: ... 말해보세요.

역도산: 저... 다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뜻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났어요. 웬지 그러구나면 잘 할 수 있겠다하는... (망설이다 빠르
게) 가슴 한 번 만져봐두 돼요?

아야, 잠시 멍하니 있다가, 뜻을 알아차리곤 웃음을 확! 하고 터트린다.

점점 붉어지는 역도산의 얼굴. 아야가 승낙의 표시로 눈을 감는다.

마침내 역도산이 아야의 가슴을 조심스레 만진다. 그러다가는 아야의 가슴에 입을 갖다
댄다. 에로틱하다기보다는 엄마품이 그리운 아이의 젖빨기같다.

19. 씬 도장

역도산의 엉덩이에 몽등이가 떨어진다. 아픔을 참느라 붉어진 역도산의 얼굴.

무자비하게 역도산의 엉덩이를 때는 다무라의 얼굴도 붉다.

스모 선배들이 주위에 물러들어 그 모습을 보고 있다.

신락: 지도, ... 감사합니다!

다무라: 너한테도 기회를 줄테니까, 너두 한번 도망가봐.

신락: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선배님, 왜 이러세요. 전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무라: 너 이 새끼. 하마유 도망가는 거 알고 있었지?

신락: 몰랐습니다.

상황을 부드럽게 모면하고 싶은 신락은 자꾸 억지 미소를 짓는데,
다무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신락의 웃는 얼굴에 던진다.
하마유가 늘 가지고 다니던 부적주머니다.

다무라: 이게 왜 나·사물함에 있냐? 하마유가 떠나면서 너한테 준 거 아냐?

신락: (장난스럽게) 선배님. 미야모토 무사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도 상황을 낙관하고 있었던 신락, 자신의 농담에 분위기가 풀릴 것을 기대하며 주변 선배들을 보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다. 딱딱한 얼굴로 웃고있는 자신을 쏘아보고 있을 뿐. 다무라가 몽둥이를 다시 고쳐잡는다.

다무라: 바보자식. 엉덩이나 대!

선배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 다무라의 매질이 이어진다. 한 쪽 벽에 붙어있는 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는 신락. 거울 속의 얼굴은 아직도 미소를 띄고 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아량을 구걸하고, 세상에 대해 아직 낙관하는 웃음.

다무라: 난 웃는 조센징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신락, 맞으면서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그 얼굴에서 점점 미소가 사라진다. 잠시 후, 고�� 때문에 입술에서 침이 새어나오더니, 기어코 눈물 한 줄기가 흐른다. 매질이 계속되는데, 도장 안에 걸려있는 현판이 신락을 내려보고 있다.
"스모는 곧 힘의 길이다"

20.썬 도장 뒷 마당

바람을 한껏 받은 빨래들이 팽팽하게 퍼진 채 날아갈 것처럼 흔들린다. 산더미같은 빨래를 하나씩 줄에 너는 신락. 마지막 빨래를 널고 이마의 땀을 훔치는데, 갑자기 줄 하나가 툭 끊어지며 빨래들이 흠바닥에 떨어진다. 빨래 사이로 나타나는 다무라.

다무라: (가위를 찰작거리며) 오이 킹! 심심하지? 내가 너하고 놀아주마.

건들거리며 나타난 다무라. 다른 빨래줄을 또 하나 끊는다. 더럽혀지는 빨래들.

신락: 좇어!

또다른 빨래줄을 노리던 다무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못들었다. 아니 믿기 힘들다.

신락: 좇어!

다무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신락: 좇어! 이 개새끼야!

다무라: 너, 너, 완전히 들었구나. 선배한테 뭐?

다가오는 다무라를 그대로 하리테로 밀치는 신락. 뒤로 넘어지는 다무라. 신락, 그 기세를 유지하여 연타로 다무라를 가격한다. 간신히 자리를 확보한 다무라, 가위를 들어 신락을 위협한다.

다무라: (입에 고인 피를 뱉으며) 너, 이려고도 무사할 거 같애?

힘으로 안되자 가위로 찌르는 다무라. 신락, 가공할 완력으로 가위를 든 다무라의 손을 통채로 잡더니 다무라의 목 쪽으로 천천히 향한다. 목에서 입, 코, 눈으로 올라가는 가위. 공포에 질린 다무라, 순간적으로 오줌을 싸며 질질 운다.

신락: 주둥이 안닥치면 쭈신다!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다무라를 발로 차는 신락.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다무라. 자신을 뵈히 쳐다보는 신락의 눈빛에 질려, 무릎을 꿇고 빌려다 깜짝 놀란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무자비하게 자신을 때던 신락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것이다. 무릎을 꿇은 채 마주 보고 앉은 두 사내.

다무라: 왜... 이러세요.

신락: 선배. 당신 아니어도 나 많이 힘들어. 근데 왜 그렇게 날 못살게 굴지?

다무라: 아니 그건, 그냥... 장난이야. 장난.

신락: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선배하고 싸울 생각도 없어. 선배는 이미 내 상대가 안되니까. ... 내가 틀렸나?

다무라: ... 킹 말이 맞아.

신락: 오늘 이후로 한번만 더 귀찮게 굴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 지 몰라. 그러니까, 선배가 날 좀 도와줘.

꼭뚫하게 절하는 신락. 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이 머리를 숙이는 다무라.

21. 씬 도장

훈련하는 스모 선수들 사이에서 다무라가 뿔뿔하게 혼자 서있다.
모두들 연습 상대가 있는데 그만 상대가 없는 것이다.

관장: (다무라에게) 스모를 5년하고도 랭킹에 한번도 못 오르니 누가 너랑 연습하겠나?

관장, 구석에서 연습용 나무기둥에 몸을 부딪히며 혼자 연습하는 신락을 발견한다.

관장: (장난기가 돌아) 정 없으면 킹하고 해보는 게 어때? 킹도 만만치 않을걸.

다무라: 켜, 켜찮습니다. 관장님.

관장: 오이 킹!

다무라: (안절부절) 켜찮습니다. 관장님. 빨래도 해야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관장: 킹! 다무라와 한판 붙어봐라.

망설이는 신락, 더 망설이는 다무라. 관장이 재촉하자 결국 도호판 위로 올라선다.

호기심에 연습을 중단하고 주위로 둘러든 다른 선수들.

시코 의식을 하는 두 사람. 무표정한 신락과 불안해 보이는 다무라.

관장의 신호로 시합이 시작된다. 슬슬 피하는 다무라, 육박해 들어가는 신락.

될 대로 되라는 듯 눈을 감고 하리테를 날리는 다무라, 그런데 다가오던 신락이 다무라의 하리테에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며 도호판 밖으로 넘어진다. 넘어진 신락보다 더 놀란 다무라. 자기 진영에 가서 서는 두 사람.

신락: (절하며) 감사합니다! 선배님. 정말 강하십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여 후배의 절을 받는 다무라.

사정도 모르고 다무라에게 박수를 쳐주는 선수들. 반면, 관장만은 신락을 눈여겨본다.

22.썸 숙소 (다른 날 낮)

아침 식사 후의 낮잠 시간. 유카다를 걸친 스모 선수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 유카다의 열린 틈 사이로 거대한 살들이 출렁이는데, 그 사이에 누워있는 신락은 눈을 뜨고 약간 열린 문 틈으로 보이는 바깥을 응시하고 있다. 밖에선 관장과 아즈마후지가 낮다회장을 모시고 자동차까지 배웅하고 있다. 관장일행의 깃뚫힌 인사를 받으며 차에 오르는 낮다, 자동차가 서서히 출발한다.

이때 갑자기 덜컥하며 문이 마저 다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형사 두명이 들이닥친다.

형사: 김신락! 김신락이 누구야!

신락: (뿔뿔히 일어나) 저, 전데요?

형사들 다짜고짜 달려들어 신락의 따귀를 갈긴다.

신락: (당황하며) 왜 이러세요?

형사: (다시 따귀를 갈기며) 이 도둑놈의 새끼! 니 놈이 돈을 훔쳤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신락: 예?

형사: (주머니에서 지갑을 하나 꺼내 들며) 니 사물함에서 나온 거다. 너 조센징이라며?

신락: ... 훔치지 않았습시다. 제가 아닙니다.

형사: 잔말 말고 따라와! 조사하면 다 나와. (수갑을 꺼낸다)

형사들 뒤에 서있는 다무라, 신락을 비웃고 있다. 신락이 죽일 듯이 바라보자,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 형사가 신락에게 막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데, 관장이 들어오고,

관장: 무슨 일이야?

형사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관장에게 잠시 주목하는 사이,
신락, 소리를 지르며 형사들을 밀쳐버리고 밖으로 달아난다.

23.씬 다리 - 개천. (낮)

낮다 회장의 자동차가 다리 앞에서 많은 행인들 때문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이 때, 신락이 자동차 앞을 위협하게 가로지르며 뛰어간다. 운전사는 크락손을 울리며 경고하는데, 신락을 추격하는 형사들과 스모 선수들이 잇따라 뛰어간다. 둔한 덩치 탓에 스모 선수들은 뛰는 것이 힘들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낮다,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연다. 헉헉대며 마지막으로 뛰어온 관장에게 무슨 일인가를 묻지만, 관장은 숨이 차 말을 못한다.

<개천>

신락이 다리 위를 달리고, 그 뒤를 형사들과 스모 선수들이 추격한다.

형사들이 바짝 쫓아오자, 경사진 언덕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가는 신락, 주저하지 않고 개천으로 뛰어든다. 퐁퐁퐁 물줄 헤치고 개천을 가로지른다. 반면, 형사1은 뚱뚱어리가 등등 떠다니는 개천을 보더니 멈춘다. 그런데, 탕! 다리 위에 도착한 형사2가 하늘에 대고 총을 쏜다.

계속 뛰는 신락, 형사2가 다시 총을 쏜다. 탄환이 신락의 주위에 물보라를 일으킨다. 그제서야, 허리까지 빠진 뚱물 속에서 얼어붙는 신락.

형사2: (신락을 겨누며)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관장: (숨을 헐떡거리며) 킹! 도망치면 안돼! 더 이상 도망치면 넌 스모를 할 수 없어. 조사를 받자.

신락: 난 아무 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난 도둑질이나 하는 조센징이 아닙니다. 난 스모 장사라고요!

어느덧 다리 위에는 구경꾼들이 가득하다. 이 때, 닛다 회장이 사람들을 헤치고 나타나 형사 옆에 선다. 신락, 닛다 회장을 보자,

신락: 닛다 회장님! 전 훔치지 않았어요. 전 스모를 하고 싶어요. 스모를 하고 싶다고요.

개천의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쓴 신락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반면, 닛다의 얼굴엔 별다른 동요가 없다.

신락, 갑자기 갈라진 목소리로 무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알 수 없던 윙조림이 점점 커진다. <황군가>다.

그의 노래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울부짖는 커다란 소리가 되어 주위에 퍼진다.

개천물 속에서 행군을 하는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며 황군가를 부르는 신락.

마치 군인의 행군처럼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면서 황군가를 목놓아 부른다.

그런 신락을 보던 닛다, 신락을 노리고 있는 형사의 총부리를 잡고 끌어내린다.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는 신락은 상처입은 야생동물같다. (FADE-OUT)

24.썬 관장의 방

닛다와 관장이 앉아있다. 문이 열리고, 신락이 들어온다.

정식으로 상투를 틀고, 좋은 의관을 입어 늙름해 보인다. 깍듯이 절하고 앉는 신락.

그의 앞에 하얀 봉투가 놓인다.

관장: 퍼봐라.

두툼한 손으로 봉투를 펴보는 신락. 흰 종이에 '역도산'라고 적혀있다.

관장: 니가 평생을 좇아지고 가야하는 이름이다.

신락, 아니 이제 역도산이 자신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되뇌인다.

기분이 좋아진 관장이 닛다에게 술을 권해 한잔씩 마신다.

관장의 지시에 따라, 닛다에게 술을 따라주는 신락.

닛다: 역도산! 넌 이제 진짜 장사다. 평소 원하던 것이 있으면 말해라. 선물로

주웠다.

신락: ...

넛다: 빨리 말해. 기원 한 번 뿐이니까.

신락: 저...

넛다: 뭐지?

신락: 아야를 주십시오.

넛다, 어리둥절해하다 다시 웃음을 터트리며,

넛다: 정말, 바보한테는 당할 수가 없군. 썩 나가!

썩스러운 신락, 고개를 숙여 절을 올리고 밖으로 나간다.

신락이 막 나오려는데 뒷 쪽에서 넛다의 말이 들린다.

넛다: (느닷없이 의표를 찌르듯) 왜 나를 불렀지?

딱딱하게 굳는 신락의 얼굴, 돌아선다.

신락: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넛다: 그때 다리 위에는 사람이 참 많았다. 죽히 오십 명은 되어보였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날 불렀지? 여기 관장님도 있었는데.

신락: (넛다를 잠시 바라보고) 제겐 회장님 밖에 안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넛다와 신락.

묘한 미소를 짓는 넛다, 잠시 후 결심한 듯 술잔을 비운다. 아까 신락이 따라준 것이다.

25. 씬 도장

텅빈 곳에 홀로 서있는 역도산, 다무라가 문가에 나타나더니 역도산에게 다가온다.

다무라: 너무 위험했던 거 아냐? (형사가 들고 있던 지갑을 역도산 앞에 보이며) 잘못했으면 너 정말 감옥에 갈 뻔 했어.

역도산: (지갑을 뺏어들고) 갈 뻔 했지.

다무라: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니 말대로 안했으면 어쩔려구 그랬지?

역도산, 대꾸없이 지갑으로 연습용 나무기둥을 툭툭 친다.

다무라: 형사 총에 맞아 튼질 수도 있었어.

손등작을 멈추고 다무라를 째려보는 역도산, 맞을까봐 긴장하여 약간 떨어지는 다무라.

다무라: 아니, 난 그냥 궁금해서, ... 말하기 싫으면 안해도 돼.

역도산: (방금 들은 닷다의 말투를 흉내내며) 정말, 바보한테는 당할 수가 없군. 선배. 인생은 첫째가 운, 둘째도 운, 셋째가 실력이야. 난 내 운을 믿는다. (지갑을 다무라에게 휙 던져 돌려준다)

역도산, 기합을 넣고 연습용 나무기둥을 당수로 친다. 우지끈 부러지는 나무기둥.

26. 썬 도장이 있던 거리 (낮)

무너진 지붕들, 웅덩이가 파인 도로, 뼈대만 남은 건물.

미군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거리. 바람이 불 때마다 먼지들이 소용돌이친다.

복구에 투입된 사람들이 불에 탄 시체들을 한쪽에 쌓고, 급한대로 자제를 정리하며 생존자와 쓸만한 물건들을 가려내고 있다. 그 중 건장한 사내들이 눈에 띈다. 근로보국대원으로 불려나온 스모 선수들이다.

자막: 1945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니쇼노세끼베야 도장> 현판.

심하게 그을리고 깨진 이 현판이 그나마 이 곳의 주소지 역할을 한다.

역도산, 스모 선후배들과 함께 무너진 자제를 들어내고 있다. 웃음을 벗고 작업하는 역도산, 상투를 튼 머리에도 먼지가 앉았다.

다무라: 황군은 도대체 뭐하는거야? 황도에서 걸어도 다니지도 못하고. (들어올리던 자제가 무겁자 놔 버린다) 이 전쟁, 정말 이기고 있는 건가?

다무라가 들기를 포기한 나무기둥을 자세히 살피는 역도산.

기둥 밑에 깔려있는 목판액자를 본다. 목판에 새겨져있는 글자가 보인다.

"스모는 ..." 뒤의 글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역도산, 나무기둥의 무게중심을 찾았는지 자세를 잡고 선다. ✓

이 때, 갑자기 공습 사이렌이 울린다. "공습이다!" 작업반장 완장을 찬 사람이 소리치자, 사람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팽개치고 대피소 쪽으로 뛰어가는데, 역도산만은 움직이지 않는다.

다무라: (안절부절) 뭐해? 빨리 버리고 가자.

역도산, 나무기둥에 힘을 주어본다. 꿈쩍도 않는 기둥. 기합을 내지르며 하늘을 보는 역도산. 사이렌소리에 비행기 소리가 섞인다. 폭탄이 떨어지며 내는 기분나쁜 추락음이 대기를 가득 채우더니, 첫 폭음이 멀리서 들린다. 다무리는 안되겠다 싶은지, 혼자 도망친다. 가까운 대피소에 모인 사람들이 역도산을 지켜본다. 자세를 잡고, 다시 한번 기합을 내지르는 역도산, 한순간 나무기둥이 들썩 움직이고, 곧이어 옆으로 내던져진다. 아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닦아내는 역도산. 기둥 밑에 깔려있던 현판을 집어든다.

“스모는 곧 힘(力)의 길(道)이다.” (세로글씨)

폭음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역도산은 현판을 집어 들고 큰 도로로 걸어간다.

도로 한복판에 서서 다가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역도산.

현판을 땅에 박은 후, 한 손으로 짚고 선다.

역도산: (하늘을 향해) 난 역도산이다!

멀리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스모 선후배를 비롯한 대피소의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인 채 역도산을 본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궁금증을 못이기고 손가락을 펴는 다무라.

역도산 전방 50미터 되는 곳에 폭탄이 떨어져 굉음이 난다.

역도산: 이 개새끼들아! 역도산은 도망가지 않는다!

광! 과광! 이 때, 역도산 가까이에 폭탄이 연달아 떨어지며 큰 폭음이 난다.

모두들 고개를 숙였다가 비행기가 지난 후에 역도산이 있었던 곳을 보면,

먼지바람만 가득하다. 잠시 후, 먼지바람이 흩어지자 역도산이 보인다.

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채, 목판을 앞세운 그 자세 그대로.

27.썸 역도산의 집 (1950년, 새벽)

방문 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역도산과 아야가 잠들어 있다.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몸을 일으키는 역도산, 술과 어젯밤의 격한 행동 탓인지 얼굴이 꺼칠하다. 그는 아야의 잠든 얼굴을 한참동안 바라보다 바깥으로 나간다.

무엇인가 찾는 소리가 들리고, ... 깨진 거울 속으로 들어오는 역도산의 썩한 얼굴.

자신의 얼굴을 뚫어져라보던 역도산, 마음을 정하고 부엌칼로 단번에 상투를 자른다.

얼굴을 뒤덮은 머리카락 속에서 반짝이는 역도산의 눈빛.

28.썸 공사 현장 - 간이사무실, 낮

목재와 벽돌 등의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먼지를 내며 지나간다.

간이사무실의 창가에 낫다가 서있는 것이 보인다.

<간이사무실>

나카다 사장이 사업보고를 하는 동안 낫다는 창가에서 시선을 돌려 사무실을 살핀다.

철제 책상 위에는 -자재부장 역도산- 이라고 적힌 팻말이 넘어져있다.

한 쪽 벽에 붙어있는 낫다건설 마크 밑에는 손으로 쓴 표어도 한 장 보인다.

“일본 제일의 인부가 되자!” 꺾꺾 눌러쓴 힘찬 글씨다.

이때 창 밖으로 역도산이 보인다. 목재 더미 위를 성큼성큼 뛰어다니며 인부들을 득려한다. 정말 일본 제일의 인부라도 될 모양이다.

낫다: 역도산은 잘 하고 있나?

나카다: 예? 자재부장말입니까? ... 낫에는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밤이죠.

역도산의 팻말을 바로 세워주는 낫다.

한편, 창 밖에는 트럭들이 일으킨 먼지 소용돌이 속에 혼자 서 있는 역도산이 보인다.

29.썬 역도산의 집

희미한 호롱 불빛이 흔들리고, 김이 자욱하게 서려있는 좁은 공간.

아야가 팔을 걸어 붙이고, 역도산의 출렁이는 넓은 등판을 닦아준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하얀 목덜미에 늘어붙고,

좁은 기모노 속에서 어깨가 쉴 새없이 움직인다.

역도산: 이제부턴 돈을 왕창왕창 벌껴야. 낫다 회장을 봐. 돈만 있으면 안되는 게 없잖아?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역도산, 뒤돌아서면 드러나는 그의 사타구니.

아야, 부끄러워 고개 숙이는데, 역도산이 그녀의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춘다.

역도산: 아야. 얼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자꾸 말라?

역도산, 아야를 번쩍 들더니 좁은 탕 안에 넣는다.

물을 머리에 붓고, 비누를 들더니 아야의 머리를 감겨준다.

아야: 장사, 갑자기 뭐예요?

역도산: 혼자서 탕에 들어가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 내가 돈벌면 목욕탕부터 넓힐거니까.

우악스럽지만 정성스런 역도산의 행동을 보던 아야, 역도산의 손을 가만히 잡아준다.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는 두 사람. 그런데 역도산, 갑자기 아야의 가슴을 움켜잡는다. 아야, 싫은 듯 몸을 빼지만, 멈추지 않고 아야를 애무하는 역도산.

아야: 장사! 여기서 어떻게...

역도산: 아야. 나는 세상에서 아야가 제일 좋다.

거칠게 밀어붙이는 역도산 때문에 아야의 머리가 벽에 쿵쿵 부딪치고, 자신도 머리를 부딪쳐가며 시끄럽게 섹스를 하는 역도산.

30. 씬 미군부대 인접 공사장 (낮)

간이 사무실 구석에서 늘어지게 잠자고 있는 역도산, 야쿠자처럼 짧게 자른 머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군살이 많이 붙어 몸 전체에서 뿜어나오던 긴장감은 간 곳 없다. 바닥에는 빈 술병들이 굴러다닌다.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외면하고 돌아누워 잠을 계속 청하는데, 인부 하나가 뛰어들어와 역도산을 조심스레 흔든다.

인부: 부장님. 부장님!

역도산: (눈도 뜨지않은 채) 뭐야?

인부: 감동이들이 우리 애들을 잡아가요.

벌떡 일어서는 역도산,

<공사 현장>

흑인 GI 2명이 일본인 노무자 2명을 끌고 가고있다.

그들을 제지하는 역도산, 옆에 있는 일본인 미군 통역관에게

역도산: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통역관: (양담배 뭉치를 보여주며) 부대 안에서 양담배를 훔쳤습니다.

역도산: (노무자들 보며) 정말이야?

주눅들어, 말을 못하고 있는 노무자들.

역도산, 느닷없이 노무자1의 면상을 무쇠 같은 주먹으로 날려 버린다.

저만치 떨어져 자빠지는 노무자1. 재차 다른 노무자 한 명까지 아작을 내는 역도산.

거침없는 역도산의 주먹질과 발길질, 그리고 노무자의 숨넘어가는 소리뿐,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때리기를 멈춘 역도산이 기가 질려 주춤하고있는 GI에게 다가가

역도산: 이 감동이 새끼들아! 니네가 뭘데 우리 애들을 때려. 니들, 사람을 이

렇게 마음대로 패도 돼?

통역관이 흑인 GI에게 설명을 해주면 어이없다는 듯

흑인 GI: 지금 농담해? 니가 때렸잖아!

역도산: (노무자들에게) 니들 내가 때렸어?

쓰러진 노무자들이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역도산: 봐! 이 감동이 새끼들아. 안 때렸대잖아!

통역관이 흑인 GI에게 설명을 해주자, 그제서야 역도산의 저의를 안 GI들, 욕을 하며 똥등을 꺼내 든다. 하지만, 역도산의 강력한 하리테에 저만치 나가떨어지고 만다.

역도산: 이 새끼들이 세끼와깨를 몰라보고...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다른 흑인 GI에게 다가가는데 저멀리서 미군용 쥘에 GI 들이 타고 몰려오고 있다.

역도산: 어쭈? 이 새끼들이 때로 덤비네.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어디론가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것보다는 도망간다는 표현이 옳다.

31. 씬 선술집 (낮)

역도산이 정종 땃병짜리를 들어 큰 사발에 따른다.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킨다.

역도산: (잔을 내려놓으며) 비겁한 새끼들, 쪽수로 밀어 붙여? 트럭으로 몰려와 봐라? 내가 겁을 먹나!

다시 술을 따르는 역도산. 잔을 넘치는 술, 또 단숨에 들이킨다. 이어지는 자작. 그 모습을 본 주인이 혀를 내두르며,

주인: (혼잣말로) 장사는 장사야. 술장사!

32. 씬 역도산의 집, 밤

역도산이 한 손에 정종 땃병 짜리를 들고 비틀거리며 들어온다.

아야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다.

역도산: 혹시 나 찾으러 온 사람 없었지?

아야: (서둘러 요리를 마무리하며) 무슨 일 있었어요?

역도산: 아니, 그냥. ... 아야! 나 내일부터 공사장 만나갈꺼야. 천하의 세끼와께
가 할 일이 아냐.

아야, 텅 빈 쌀독을 보고 한숨을 쉰다. 남편을 향해 들어서는데, 역도산이 없다.

‘장사!’하고 부르지만 대답이 없다. 안방에도 없자, 목욕탕으로 가는 아야.

역도산, 옷을 입은 채 탕에 들어가 정종을 마시고 있다.

역도산: 아야.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공사장 일도 하고, 술도 마시고, 쌈질까
지 해봐도, 시간이 남아.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머리에 술병을 갖
다대며) 씨팔, 꼴이 쏟아지는 거 같아.

다시 술을 들이키는 역도산, 그러다가 모로 픽 쓰러져 잠이 든다.

아야, 남편에게서 술병을 뺏어 바닥에 두고, 역도산 옆에 앉는다.

33. 씬 역도산의 집 (낮)

따갑게 쏟아지는 햇살이 늦잠자는 역도산의 얼굴에 쏟아진다.

역도산: (눈도 뜨지않고) 아야! 물! 물 가져와!

대답이 없다. 신경질을 내며 일어나는 역도산, 아야는 보이지 않는다.

역도산: (머리가 아픈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망할 년. 어딜 간거야?

부엌으로 가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흘리는 물이 벗은 가슴 위로 즐줄 흐른다.

방으로 걸어오던 역도산이 문득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덕지덕지 붙은 살이 흉측하게 늘어져있다. 그의 시선이 점차 올라가더니 결국 얼굴에서
멈춘다. 험하고 목적없어 보이는 두 눈. 스스로가 봐도 망가져 보인다. 거울을 뚫어져라
보던 역도산, 거울 속의 자신을 상대로 스모 동작을 취한다. 시코의식을 하고, 투지를
불태우며 허공에 하리테를 날려본다.

등장이 예전같지 않은 것을 스스로 깨닫는 역도산, 힘이 빠진 듯 갑자기 자세를 푼다.

방바닥에 퍼질러 앉아있는 역도산, 갑자기 다시 일어나더니 처음부터 다시 스모의 동작
을 시연한다. 할 일 없는 백수의 시간 때우기 같지만, 나름대로 진지하다. (F.O)

34. 씬 스모 협회

<협회 건물 앞>

자전거 세 대가 서고, 거구의 스모 선수들이 연달아 내린다. 선배 다마노우미를 비롯, 선수들이 한 쪽을 보더니 동작을 멈춘다. 건물 앞에 역도산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세워져있다. 걱정스런 얼굴로 건물을 보는 다마노우미. 동료들과 함께 뛰어올라간다.

<건물 안, 임원실>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이 역력한 임원 세 명이 앉아있다.
그 앞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고 앉아있는 역도산.

역도산: 스모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스모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임원: 역도산. 이미 결정난 일을 가지고 왜 이러나?

역도산: 깊이 반성했습니다.

역도산,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임원들에게 내민다.

임원: (받으며) 뭐가?

역도산: 이제 모모다 미츠히로라고 불러주십시오.

임원: 모모다? (서류를 펴본다)

역도산: 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스모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양자 간에 잠시 침묵이 흐르는데, 문이 열리고 다마노우미가 들어온다.

다마노우미: 황태자 부부께서 출발하셨다고 합니다.

임원: 알았다.

역도산: 도와주십시오.

임원: (서류를 내려놓고) 넌 너무 늦었어.

임원들, 일어나다가 역도산의 귀화신청 서류를 떨어뜨린다.

역도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더니 날카로운 눈으로 임원들을 찌려본다.

천천히 일어나는 역도산, 모두를 긴장시키며, 임원들 앞으로 걸어간다.

다마노우미: 역도산! 오늘은 황족이 협회에 오시는 날이다. 예의를 갖춰라.

다마노우미 뒤쪽으로 스모 선수들이 잔뜩 모인다. 여차하면 역도산을 붙잡을 기세다.

역도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든다.

무서운 눈빛으로 주위를 쏘아보더니, 밖으로 걸어나간다.

다마노카와, 길을 열어준다. 스모선수들이 갈라서며 내준 길을 통과하는 역도산.

35. 씬 술집 (밤)

십 여명의 스모 선수들이, 왁자지껄 웃고 떠들며 술집 안으로 들어선다.

왁자하게 웃으며 자리를 찾아 가다가 갑자기 웃음과 말소리가 뚝 끊긴다.

구석 자리의 역도산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수들에게 역도산이 씨익 웃어 보인다.

스모 선수들, 어색하게 인사한다. 가급적 눈을 안 마주치려 하며 그를 피해 멀리 떨어져 앉는다. 모두들 역도산에게 등을 지고 앉으려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역도산: 어이! 다마노카와! 이리 와서 술 한잔 받아라!

쭈뼛거리며 역도산의 앞자리에 가 앉는 다마노카와.

역도산이 큰 잔에다가 철철 넘치게 술을 따라 준다.

역도산: 다마노카와! 고무스비(스모랭킹4위)가 된걸 축하한다.

다마노카와가 역도산의 말에 긴장이 풀리며 어색하게 웃으면

역도산: (노려보며) 왜 웃어?

다마노카와: (사색이 되어) 아, 아닙니다.

역도산: 고무스비가 됐다고 날 무시하는건가?

다마노카와: (당황해서) 아닙니다. 선배님.

역도산: 그럼, 스모를 다시 하겠다고 찾아갔다가 퇴짜맞은 놈이래서 웃는건가?

다마노카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역도산: 정말, 바보한테 당할 수가 없군. ... 그럼 아무 이유도 없이 웃었던 말야? 이 새끼가 날 뭘로 보고!

정중병을 들어 다마노카와의 머리를 내려치는 역도산.

펑! 소리가 나며 박살이 나는 정중병.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비틀거리는 다마노카와.

스모선수들: 다마노카와, 도망쳐! (하더니 일제히 도망친다)

격분한 역도산, 벌떡 일어나 도망치는 스모 선수들을 추격한다. 피투성이가 된 다마노카와가 이 틈을 타 밖으로 뚫는다. 도망치는 다마노카와를 발견하는 역도산.

36.썸 거리. (밤)

다마노카와, 도망은 치지만 워낙 뚱뚱한 몸에,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눈을 자꾸 적셔 속력이 나지 않는다. 어느새 목표물을 따라잡은 역도산, 다마노카와의 뒷 꼬무니를 때리기 시작한다. 집요하게 달라붙어 때리는 역도산의 발길질에 떠밀리듯 쫓겨가는 다마노카와. 눈 앞에 파출소가 나타나자 다짜고짜 뛰어 들어간다.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따라 들어가는 역도산.

37.썸 파출소 안 (밤)

몸부림 치는 역도산을 여섯명의 순사들이 붙잡아 간신히 못 움직이게 하고 있다. 역도산에게 쫓긴 다마노카와는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한쪽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고,

역도산: 세키와케 역도산에게 수치를 주다니, 용서 못해!

진땀을 흘리며 역도산을 붙잡는 순사들.

역도산 더욱 고래고래 소리를 치르고 난장을 친다.

38.썸 닷다의 집 (낮)

평상복을 입은 닷다는 난화분을 다듬고 있다. 그 앞에 무릎꿇고 앉아있는 아야.

닷다: 빛대신 받은 건데, 영 틀렸어. 뿌리가 다 썩었어. 니가 보기엔 어떠냐?

아야: 전 어디서든 잘 피는 잡초가 더 좋습니다.

닷다: ... 내가 스모협회에 말해 역도산이 다시 스모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치자. 그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지? 너희 한심한 부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니 몸밖엔 없는 거 같은데.

아야, 기모노를 풀어 나신을 드러낸다. 화분 손질을 멈추는 닷다. 기모노가 흘러내려 앉아있는 아야의 아랫도리를 감싸주지만, 윗도리는 닷다 앞에 흰히 드러나 있다.

닷다: 아야, 그 바보는 딸이다. 지금 간신히 새로운 일에 적응하는 중이다. 니가 이러면 바보는 더 힘들어져.

아야: 전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닷다: 자기가 갈 길 정도는 스스로 찾아야 남자라고 할 수 있다.

아야: 남편이 스스로 자기 길을 찾으면, 그 땐 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닛다: ... 너희들, 정말 뻔뻔한 부부다. 남편은 싸움질 뒷처리들 시키고, 마누라는 남편의 봉급을 주는 주인한테 이직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다니. (피식 웃고) 알았으니, 그만 웃이나 입어.

웃을 추스린 후, 닛다에게 절을 올리는 아야.

39. 씬 긴자의 밤 풍경 (밤)

50년대 긴자의 밤 풍경이 펼쳐진다.

불야성을 이룬 네온 싸인들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

40. 씬 클럽 은마차 안 (밤)

초점이 흐릿하게 맞으면서 보여지는 클럽 안의 풍경.

호스데스들과 웨이터들이 부지런히 왔다갔다하고, 여자들의 웃음 소리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섞여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퇴폐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한 칸에서 잔뜩 취한 역도산이 그 풍경을 보고 있다. 빈 병이 가득한 테이블 위. 갑자기 바닥에 '카!' 하고 가래침을 뱉는 역도산, 술병을 나발볼려하면 이미 술이 떨어져있다. 큰 소리로 웨이터를 부르는 역도산.

역도산: 여기 술 가져와!

웨이터: 손님, 많이 취하셨습니다.

역도산: 뭐? 야, 임마. ... 난 손님이 아니라, 세끼와께 역도산이야.

하며 웨이터를 거센 힘으로 밀쳐버리는 역도산. 웨이터가 저만치 나가떨어지며 탁자에 부딪치고, 술병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 때아닌 소란에 응성거리는 홀 안. 그런 역도산에게 야쿠자 풍의 사내가 다가

사내: 손님. 그만 하시죠. 이 업손 이나가이회에서 보호합니다.

역도산: (눈이 확 돌아) 지금 세끼와께를 겁주는거야? 야쿠자 새끼가?

사내: (주눅들지 않으려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손님.

역도산: 개새끼!

하며 맥주병으로 사내의 머리를 쳐버린다. 쓰러지는 사내를 마구 짓밟는 역도산. 호스데스들이 비명을 지른다. 자신의 감정을 쓰러진 사내에게 모두 퍼붓는 역도산, 어느 순간, 그런 역도산을 누군가 붙잡는다. 역도산, 뒤를 돌아보면, 해럴드 사카다다. 커다란

덩치가 역도산에게도 결코 기죽지 않을 만큼 당당하다. 역도산, 몸을 빼려고 하지만 강한 힘에 몸을 제대로 뺄 수가 없다.

역도산: (뒤돌아보며) 뭐야?

사카다: 적당히 하지?

역도산: (고개 끄덕이며) 알았어, 그만 하지.

사카다가 몸을 빼주면, 그 자리에서 뒤돌아 사카다를 강타하지만

여유있게 역도산의 공격을 피하는 사카다.

순간 긴장하는 역도산. 썸 놈을 만난 느낌이 순간적으로 꽃힌다.

자세를 바로 잡으며 스모의 하리테를 날리지만, 어느 샌가 사카다의 헤드 락에 걸리고 만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당해, 역도산, 어이가 없어 아픈 것도 잊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가 애를 쓰면 쓸수록 목은 더 죄어오고, 빠져 나오려고 애를 쓰는 역도산의 얼굴이 더욱 붉어진다. 사카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숨이 막히도록 조인 후, 역도산을 집어던지듯 풀어준다. 역도산, 고통을 참으며 사카다를 노려본다.

사카다: 체력이 좋군. (역도산을 살피며) 자넨 스모선수 출신인가?

역도산: 시끄러. 이 개새끼야.

역도산, 옆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입으로 물어뜯는다.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는 사람들. 유리조각을 잘근잘근 씹어 사카다 쪽으로 뺄는 역도산.

역도산: (슬 때문에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버티며) 넌 오늘 죽었어.

휘청거리는 발, 혼미한 시야, 아픈 목.

입가에서도 피가 배어나오는데, 역도산은 실실 웃음을 흘리기 시작한다.

한 걸음 내딛으려 하지만, 순간 비틀하며 넘어지는 역도산.

사카다, 자세를 풀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역도산: (술에 취해 꼬부라진 말투로) 도망가는거냐?

사카다: (돌아서서) 난 프로레슬러 해롤드 사카다라고 한다. (명함을 역도산에게 던지고) 술깨면 내 클럽에 한번 들러.

역도산: 이 자식이, 날 뭘로 보고? (일어나 몇 발자국 걸다가 다시 넘어진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는 사카다.

흐트러진 복장으로 바닥에 쓰러진 채 사카다의 뒷모습을 보는 역도산.

41. 씬 공사현장, 간이사무실 (새벽)

책상 앞에서 선 역도산의 거대한 뒷모습. 조명이 깜박깜박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해서, 그림자가 생겼다가 사라지곤 한다. 책상 위에는 쇠사슬 멍치, 여러 가지 칼, 망치, 도끼, 줄톱 등 은갓 흥기들이 다 나온다. 공사현장 도구이자, 무기도 되는 물건들. 눈에 핏발이 선 역도산, 흥기들을 일일이 확인하더니, 도끼를 집어 들고 휘둘러본다.

역도산: 개새끼들. 다 죽여주마.

42. 씬 슈라이나즈 클럽 (아침)

체육관 2층에서 운동하던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나가더니,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무리의 동료 선수들이 누군가와 대치하며 뒷걸음질치고 있다. 선수들은 모두 잔뜩 긴장한 채로 정면을 보고 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앞으로 나서는 청년. 이 많은 남자들을 상대하며 밀고 올라오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인가 싶은데, 눈 앞에 서있는 남자를 보곤 깜짝 놀란다.

쇠사슬로 상체를 칭칭 감고 손에 도끼를 든 역도산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온다.

그 기세 그대로 체육관 문까지 밀고 들어오는 역도산,

야쿠자 소굴을 기대했기에, 운동기구와 레슬러들 사진으로 가득찬 실내를 보자, 뭔가 분위기를 잘못 파악했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역도산: 사카다는 어딴나?

가벼운 등작으로 링 위로 올라서는 사카다.

사카다: (역도산을 보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어이. 스모꾼. (링 바닥을 발로 쿵쿵 차며) 프로레슬링은 맨 손이면 충분해.

<시간 경과, 링>

쇠사슬을 모두 벗어던지고 맨 몸이 된 역도산, 로프를 등지고 서있다.

반대편에는 사카다가 어깨 근육을 유연하게 풀며 서있다.

역도산: 미리 말해 두는데, 난 죽기 살기로 싸운다.

사카다: (빙그레 웃으며) 시작할까?

기합 소리와 함께 앞으로 나서는 두 사내.

43. 씬 교차편집 (고민하는 역도산과 링에서의 싸움)

<술집>

혼자 꼼꼼히 생각에 잠겨있는 역도산, 그의 앞에는 아직 따지않은 술병이 놓여있다.

<링>

역도산, 사카다를 향해 하리테를 날린다. 사카다, 역도산의 팔을 잡아 팔 관절을 꺾는 압력을 걸어 역도산을 링바닥에 메친다.

<술집>

주인: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술병을 들고와) 서비스입니다. 세끼와께. 기분이 안좋아 보이시네요, 한 시간 동안 한 잔도 안드시고.

역도산: (새 술병을 잠시 보고) 내가 맨날 술이나 처먹는 주정뱅이인 줄 알아?

주인: (급신급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역도산.

<역도산의 집>

찌르르, 찌르르, 귀뚜라미가 운다. 역도산, 별거벗은 채 정원에 나가, 흙 위에 앉아있다. 벗은 몸 여기저기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링>

로프의 반동을 이용하여 날아올라 역도산의 목을 휘감아 링바닥에 꽂아 버리는 사카다. 투지로 맞서는 역도산을 온갖 현란한 기술을 동원해 제압하는 사카다. 링 바닥에 땀자르 뺀 역도산. 아픔이나 패배감보다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경이로움에 취해있다.

사카다: Welcome to the world of pro-wrestling!

<거리>

두 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고개를 외로 끈 불량스런 걸음걸이로 어디론가 가는 역도산. 드문드문 켜있는 가로등 불빛 너머 야트막한 산등성이에 새벽의 여명이 보인다.

<슈라이나즈 클럽>

링 바닥에 앉은 사카다와 역도산. 땀에 젖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카다: 뭘 모르는군. 투 테즈라면 오끼나와 경돈 현찰로 살 수 있을거야.

역도산: 투 테즈가 누군데?

사카다: 프로레슬링 세계챔피언!

<닛다 회장 집 앞>

회장의 캐딜락이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다. 그 앞에 서는 역도산, 집을 올려다본다.

멀리서 두부장수의 종소리가 들린다.

<슈라이나즈 클럽>

로프를 훌쩍 뛰어넘어 내려가는 사카다. 아직 링에 있는 역도산을 향해.

사카다: 역도산. 스모는 일본의 것이지. 하지만 바다 건너엔 세계의 스포츠, 프로레슬링이 있다.

혼자 링 위에 남은 역도산, 링 위에 댓자로 길게 누워본다. 스모 선수 시절 들었던 관중들의 환호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 허공을 향해 고향을 지르는 역도산.

44. 씬 닷다 회장의 집 앞 (아침)

비가 내려 처마에서 빗방울이 연신 떨어진다.
대문이 열리고 운전기사가 나온다. 우산을 펴고 닷다 회장을 기다리는데, 한 쪽을 보더니 깜짝 놀란다. 뒤이어 나오던 닷다, 놀라는 기사를 보고 대문 한 쪽을 본다.
대문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선 채 잠들어 있는 역도산.

닷다: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차고 난리야?

역도산, 정신을 차리고 닷다의 발 아래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다.

역도산: 회장님! ... 부탁이 있습니다.

닷다: 니 놈 부탁이 뻥하지. 이번엔 누굴 뺐냐?

역도산: 그런 게 아닙니다. 역도산 일생일대의 청입니다.

닷다: 나중에 사무실로 와. (차로 걸어간다)

역도산: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닷다, 역도산을 무시하고 자신의 캐딜락으로 걸어가, 기사가 열어준 문으로 탄다.
차 안에서 밖을 보면, 고개를 숙인 역도산, 빗물이 흐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리는 비를 맞고 있다. 차 창을 내리는 닷다.

닷다: 정말, 바보한테는 당할 수가 없군. 그래 뭐야?

역도산: 회장님. 절 미국에 보내주십시오.

닷다: 미국?

역도산: 네. 미국에 가서 서양 스모인 프로 레슬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닷다: ...

역도산: 인생이란 기껏해야 60년입니다. 전 그 중 반을 덧없이 허비했습니다.

나머지 삶은 후회없이 보내고 싶습니다.

넛다: 나의 넛다 건설에서 뭐 서운한 일 있었나?

역도산: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넛다: 뭘 다시 시작하기엔 니 나이가 적은 게 아냐. 다시 남의 밑을 뒹갸다고?
스모처럼 중간에 포기하는 거 아냐?

역도산: 프로레슬링은 세계의 스포츠입니다.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넛다, 말없이 다른 쪽을 본다.

역도산: 회장님. 싸움이라면 이 역도산, 누구한테도 지지않습니다. 투자하신다
고 생각하고, 한번만 밀어주십시오. 반드시 백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넛다: 아야는 어찌구. 너같은 바보한테 과분한 여자야.

역도산: 그동안 회장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당장 굶어죽었을
것입니다. 이젠 저도 아야한테 미안한 것 그만하고, 가장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가야합니다.

넛다: ...

역도산: 회장님. (눈물을 흘린다)

넛다: 사내 자식이 우는거냐?

역도산: 역도산은 울지 않습니다. 다만,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대답을 기다리는 역도산. 넛다의 차는 꼼짝 않고 서있다.

45.썸 거리 (낮)

거구의 스모 선수가 별경계 상기된 얼굴을 한 채 뒤뚱거리며 어디론가 뛰어간다.
그의 얼굴엔 마지막 오르막을 남겨둔 마라톤 선수같은 비장함이 서려있다.

46.썸 선술집 (낮)

일단의 스모 선수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그중엔 이전에 역도산에게 두들겨 맞았던 다
마노카와도 보인다. '벌컥!' 열리는 문. 스모 선수들이 쳐다보면,

마라톤 스모: (호흡을 못가다듬고) 역, 역도산이... 역도산이...

역도산이 오는 줄 알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스모선수들.

마라톤 스모: 역도산이 미국엘 간데... 서양 스모를 하겠다고 미국엘 간대!

그 말을 들은 스모 선수들 잠시 어안이 병병해진다.
다마노카와의 눈에선 눈물이 주룩룩 흘러내린다. 그런 다마노카와를 보는 스모선수들.

다마노카와: (눈물을 글썽이며 두팔을 번쩍 들어) 만세! 만세!

일제히 만세를 합창하는 스모 선수들. 설움과 압제에서 벗어난 식민지 사람 같다.

이제라도 만세. 60년

47. 씬 역도산의 집 (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고 있는 역도산, 아야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완전히 차려지지 않은 밥상과 선물꾸러미 한 상자가 놓여있다.

역도산: 아야, 아직 멀었어?

아야: 잠깐만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역도산: 그렇게 나가서 먹자니까.

아야: 외식은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두 없어요. 심심하면 먼저 한잔해요.

역도산: 이제 술은 안돼.

아야, 불을 잘 조절해 놓고, 돌아서서 선물꾸러미를 풀어본다. 서양식 여자 정장이다.
웃을 들고 감개무량한 듯 보며 좋아하는 아야. 역도산은 그런 아야의 감동받은 얼굴이 부담스러운 지 고개를 창 밖으로 돌린다.

아야: 너무 세련돼서 난 안어울리는 거 같아요.

거울 앞에서 옷을 몸에 대보며 행복해하는 아야. 그런 아야를 보는 역도산.

역도산: 아야. 나 미국에 가게 됐다.

아야: 예? 뭐라고요?

역도산: 나, 미국에 간다구.

아야: ... 회사 일이에요?

역도산: 프로레슬링이라고, 서양 스모가 있어. 도전하기로 했다. 너도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혼자 간다. 길을 찾았으니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셨어.

아야: ... 얼마나 걸리는데요?

역도산: 글썸. ... 솔직히 말하면, 성공하기 전엔 안 돌아올꺼야.

말문이 막힌 아야, 멍하니 서있다.

역도산: 아야, 남자가 바다를 건널 때엔 각오가 필요해. 십 일년 전에는 현해탄 이었고, 이번엔 태평양이지. 건널 바다는 더 넓어졌는데, 난 더 늙어버렸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

부글부글 끓던 냄비가 기어코 넘치며 뚜껑을 밀어낸다.
아야, 부엌으로 가서 불을 줄이고, 떨어진 냄비 뚜껑을 닦고, 음식의 간을 본다.
의식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충격을 견디기 위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때 조명이 일제히 꺼진다. 창 밖도 함께 어두워진다. 동네가 정전된 것이다.
어둠 속에서 역도산의 묵소리가 들린다.

역도산: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좋아. 난 상관없어.
아야: (계속 음식을 하며) 졸아서 맛이 없겠네. 물을 더 넣을게요.
역도산: 나도 미국가서 백인여자들 꼬실테니까, 아야도 새 남자 만나.
아야: 오뎅을 잘못 샀나. 다 퍼졌잖아.
역도산: 지금 오뎅이 문제야? (밥상을 찬다)
아야: 양초가 어디 있을텐데.

양초를 찾아 집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아야, 찬장에서 양초를 찾아 불을 켜다.
역도산이 바로 앞에 서있다. 서로를 보는 두 사람.

역도산: (양초를 손으로 끄고) 아야.

아야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역도산, 눈물을 흘리며 역도산을 받아들이는 아야.
창 밖은 아직 짙은 어둠.

48. 씬 요정, 연회실

역도산의 환송회가 열리고 있다. 닛다 회장과 나카다 사장이 상석에, 역도산과 스모 선수들은 주위에 둘러 앉아있다.

나카다: 자, 이번엔 우리 주인공이 장기를 좀 보여주지.
역도산: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나카다: (슬기운도 있고, 아직 역도산의 무서움을 모른다) 아니? 세상에 장기없는 스모선수가 어딤어?

눈치없이 나카다 사장을 거들어, 역도산에게 장기를 재촉하는 게이샤들.
역도산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젓는다.

넛다: 역도산, 그러고 보니 니 장기는 한번도 본 적이 없다. 한번 해봐라.

역도산: (잠시 생각하다 회장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역도산, 게이샤에게 뭔가 컷속말을 하자, 게이샤 냉큼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넛다: 재미없으면 미국행은 포기하라고.

게이샤가 삶은 계란과 400그램 짜리 양초 10개가 들은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역도산, 삶은 달걀을 먹기 시작하고, 게이샤는 그 옆에서 촛불 10개를 세워 불을 켜다.

삶은 계란 20알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역도산,

역도산! (게이샤들에게) 불을 꺼줘.

게이샤가 전등불을 끄자, 한 순간 촛불만 남는다. 역도산, 촛불을 향해 들어서서 엉덩이를 까내리고는 '부욱!' 하고 소리가 요란한 방귀를 내뿜자, 400그램짜리 촛불 10개가 단숨에 꺼져 버리며 암흑으로 변한다. 사람들의 탄성 소리. 곧이어 냄새에 질색한 사람들이 숨을 멈추는 소리. 견디지 못하고 몇몇이 밖으로 뛰어나간다.

넛다: 정말 바보한테 당할 수가 없군!

49. 씬 역도산의 승전보 뉴스를 (흑백화면)

역도산이 방귀로 만든 암흑이 밝아지며, 요란한 음악과 함께 흑백의 뉴스를 필름이 화면에 떠오른다. '일본의 빛나는 별. 리키도잔' 이란 영문 타이틀이 떠오르더니, 파도 위에 붉은 태양이 떠 있는 호화로운 문양의 가운을 입은 검은머리의 사나이가 링 위로 올라간다. 역도산이다.

암흑을 당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의 역도산.

자신보다 한 뼘은 더 큰 미국의 레슬러에게 가라데 춤을 날리는 역도산의 몸짓 위에 날아와 박히는 자막. '가라데 춤'

열광하는 일본계 미국인들, 반면 야유를 보내는 미국인들.

검은 타이즈를 입은 역도산. 번개 같은 드림킥을 날리는데서 자막 떠오른다.

'샌프란시스코, 디트로이트, 뉴욕, 캐나다, 멕시코, 호노롤루 가라데 춤 점령'

역도산의 여러 경기 장면들이 보여진 후, 마지막으로, 피투성이가 된 역도산이 달려나와 상대방에게 가라데 춤을 날리며 뉴스를 끝난다.

50. 씬 맞춤 양복점, 낮

재단사가 핀으로 양복 여기저기를 고정시키며 닷다의 찢수를 재고 있다.
닷다는 서서 신문에 실린 역도산 기사를 보고 있다.

재단사: 회장님. 윗도리는 하시던 대로 두벌로 하겠습니다.

닷다: (고개를 끄덕여주고, 신문에 시선을 돌린다) 이 바보 자식, 꽤 잘하고 있잖아? 미국 전역을 돌면서 300번 싸워서 3번밖에 안졌으니...

이 때, 비서 요시마치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

요시마치: 회장님! 큰 일 났습니다.

닷다: 뭔데 이렇게 소란을 피워?

요시마치: 저길 보십시오! (창가로 다가가 밖을 가리킨다)

닷다, 선 채로 창가를 본다.

리본을 두른 캐딜락이 주차되어 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요시마치: 역도산이 회장님께 보낸 선물입니다!

닷다: 캐딜락 따윈 많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요시마치: 회장님! 저 찬 그냥 캐딜락이 아닙니다. 저 차는 황태자 전하께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에 참례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호놀룰루에서 사용하신 53년형 캐딜락입니다. 두 대중 한 대는 서양인이 사갔는데, 그 나머지 한 대를 역도산이 선물한 것입니다.

닷다: 황태자 전하가 타신 차라고! 야얏!

요시마치의 말에 재단사도 놀라 그만 핀으로 닷다의 허벅지를 찌른 것이다.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죄송하다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재단사를 뒤로하고, 닷다 역시 흥분하여 핀이 여기저기 꽂혀있는 옷을 입은 채 웃으며 달려나간다. 그러다가 문 앞에서 복장이 불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걸음을 멈추고 핀들을 뽑아내는 소등을 벌인다.

51. 씬 닷다 회장의 집 (낮-저녁)

걸레질,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하는 아야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보여진다.

창 밖으로 해가 질 때가 되어서야, 남루한 옷을 입고 퇴근하는 아야.

정원으로 나와 가만히 서 있는데, 이윽고 닷다의 부인이 나와 아야에게 봉투를 건넨다.

아야: 항상 감사합니다.

부인: 언제 그만둘거야?

아야: 예? ...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부인: 능청은. ... 리키 상이 우리 남편한테 캐딜락을 사서 보냈던데, 부잣집 사
모님이 언제까지 남편의 집 청소를 할거야?

아야: 캐딜락이요? 우리 남편이요?

부인: (가만히 아야의 표정을 보다) 아야, 혹시 리키 상이 귀국하는 것두 모르
는 거야?

전혀 모르고 있던 아야, 병쩍 상태에서 무언가 답하려다, 혹은 무언가 물어보려다 멈추
고 만다. 더 이상 바참해지기 싫기 때문이다.

52.썬 비행기 안 (낮)

자막: 1953년 6월

승객들 사이를 지나가는 예쁘장한 스튜어디스. 손님들에게 안전벨트를 맬 것을 권유한
다. 어느 사내 앞에 서서,

스튜어디스: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창 밖을 보던 사내, 고개를 돌리면 역도산이다.

깔끔한 양복으로 차려입고, 머리는 짧게 잘라 파마를 해 울백으로 넘겼다. 악세사리 하
나까지 세련미가 넘친다. 예전의 역도산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역도산.

역도산: (상대방이 일본어로 물어보는데도 영어로) 낫씽!

스튜어디스: 뵙게 되서 영광입니다. 역도산 선생님. 싸인을 부탁해도 될까요?

스튜어디스가 내민 종이에 "프로레슬러 역도산"이라고 싸인하는 역도산.

미소와 함께 들려준다.

53.썬 공항출구

승객들과 함께 출구로 나오던 역도산이 그만 우뚝 서버린다.

<환영 프로레슬러 역도산 선생> 이라고 적힌 커다란 플래카드 밑에 수많은 환영인파가
물러있다. 역도산이 등장하자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걸어와 목에

꽃다발을 걸어준다. 이에 맞춰 여기저기서 터지는 보도진의 카메라 플래쉬. 이윽고 닛다. 회장이 다가와 악수를 건넨다.

역도산: 회장님! 여전하십니까.

닛다: 미국에선 정말 잘 해주었다.

역도산: 회장님한테 돈 값을 생각을 하니까, 질 수가 없었습니다.

인파 뒷 편에 아야가 서있다. 아야,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여의치않다. 역도산과 눈이 마주치길 기대하며 눈길을 보내보는데,

닛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지.

닛다, 역도산을 대등하고 밖으로 나간다. 역도산은 아야를 보지 못한다.

54.썬 달리는 캐딜락 안

역도산이 닛다에게 선물한 황태자가 탔던 캐딜락. 닛다와 역도산이 승차한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요시마치가 역도산에게 인사한다. 물려드는 인파를 뒤로 하고 출발하는 자동차.

역도산: 회장님. 편지는 보셨습니까?

닛다: 일본에서 프로레슬링 경기를 하자는 거 말이지?

역도산: 예.

닛다: 벌써 준비를 다 끝내놨네. 어이, 요시마치!

조수석의 사내: 예! 회장님.

닛다: (역도산에게) 앞으론 이 녀석이 비서로서 자넬 도와줄걸세. 이 녀석 말이, 자긴 부자되는 법을 알고 있대. ... 너 뭐라고 했지?

요시마치: 부자되는 건 간단합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면 됩니다.

재밌다며 무릎을 치며 웃는 닛다와 허탈한 듯 미소짓는 역도산.

요시마치: 역도산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역도산: 나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요시마치: 선생님. 먼저 오늘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닛다: 그 다음은 뭐가 그 다음이야. 나하고 진탕 마셔야지.

역도산: 예. 회장님.

기대 이상의 환영에 기뻐하며 창 밖의 풍경에 시선을 두는 역도산.

55. 씬 기자 회견장

손짓 발짓을 해가며 정열적으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역도산,
그 뒤에는 스모 시절의 후배들이 유세하듯 나란히 서 있다.

역도산: 경기가 끝난 후 링 위에 올라보면, 피와 부러진 이빨, 떨어진 살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레슬링에서 피는 링에 피어난 꽃입니다. 저는 일본 프
로레슬링의 백 년을 생각하고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시바기자: 예, 멋진 얘기군요. 하지만 우리 일본에는 이미 스모라는 국기가 있
습니다. 또 유도도 인기도 높습니다. 프로레슬링이 통할까요?

역도산: 사나이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진정한 격투기를 일본사람들이 외면할
리 없습니다.

시바기자: 2년 동안 300경기를 치루고 단 세 번밖에 지지 않았다. 실로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권투의 경우 2년에 10경기 이상을 갖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프로레슬링은 권투보다도 더 격렬한 격투
기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전적은 어느 기관
에서 공식 승인 된 것입니까?

역도산: (불쾌하다) 그럼 내가 미국에서 치룬 경기들이 거짓말이란 말입니까?

시바기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 오해하지 마세요.

역도산: (분을 참고) 나 역도산, 만드시 프로레슬링을 일본 최고의 스포츠로 만
들겠습니다. 앞으로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6. 씬 요정 (밤)

닛다와 각 지방의 흥행사들이 앉아있다.

흥행사1: 오사카 사람들은 대부분 프로레슬링이 뭔지도 모릅니다. 또, 프로유도
도 찢찢 매고 있는 형편인데, 너무 위험합니다.

흥행사2: 나고야도 같은 생각입니다.

십 여명의 흥행사들, 동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인다.

닛다: 난, 역도산이 미국에서 이룬 성과를 과소평가할 건 아니라고 본다.

흥행사1: 바로, 그 역도산이란 것도 사실 큰 문젭니다.

<옆 방>

역도산, 앉아서 창호지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흥행사들과 닛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뒤에 앉은 요시마치가 불안한 눈빛으로 역도산을 본다.
역도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주먹을 가만히 쥐다.

<회의 방>

흥행사3: 솔직히 역도산이라고 해봐야, 스모에서 쟁쟁하게까지 밖에 못올라간
자 아납니까? 그 정도 이름으론 어렵었습니다.

흥행사1: 유도의 기무라라면 또 몰라도.

닛다: 기무라?

흥행사2: 예. 천람 시합 5연속 한판 우승에 빛나는, 유도 사상 최강의 사나이
기무라입니다.

흥행사3: 기무라 앞에 기무라 없고, 기무라 뒤에 기무라 없다. 기무라는 규수
지방에 연고도 있으니까, 규수 쪽에서의 흥행에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흥행사4: 예. 유도의 기무라라면 저희도 한번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무라라면 하겠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흥행사1: 역도산은 연고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 사람입니까?

흥행사2: 제가 듣기에는 조센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닛다: 그만! 자네들 이야기는 잘 들었다. 거수를 하겠다. 일본 프로레슬링에 찬
성하는 자는 손을 들라.

흥행사1: 역도산의 프로레슬링입니까?

닛다: 그렇다. 역도산의 프로레슬링이다.

<옆 방>

건너 편 방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역도산. 그렇다. 여긴 일본인 것이다.

<회의 방>

열 명 중 한 명만이 손을 들었다.

닛다: 자네들의 의견은 잘 알았다. 이제부터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을 꼭 해야한
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옆 방에 대고) 들어와라.

흥행사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방 문이 열리고 역도산이 들어온다. 흠칫 놀라는 흥행사
들. 역도산, 닛다에게 정중하게 절을 한다. 고개를 들고 흥행사들을 둘러본 후,

역도산: 어르신들. 거리를 보십시오. 전쟁은 끝났지만, 미국인을 보는 일본인들
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언제부터 일본이 이렇게 나약해졌습니
까? 만주에서, 필리핀에서, 태평양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갈 때에
도 우리 일본인들의 눈빛이 이런진 않았습니까. 전 제 한 몸을 위해서

프로레슬링을 하지는 게 아닙니다. 거인같은 백인 장사들을 불러들여,
그들과 당당하게 싸우는 일본인의 모습을 일본의 어린이들에게 보여주
고 싶습니다. 부디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뜻을 보아주십시오.

모두 침묵하는 사이, 역도산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닛다.

57.썬 레슬링도장 건설 현장

인부들과 레슬링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건물을 올리느라 열심이다.
조금씩 뼈대를 갖추어가는 건물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역도산.
그런 역도산 앞에 머리를 뺏빱 민 사내 한 명이 나타나 무릎을 꿇는다.

사내: 선생님!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조선에서 온 김일이라고 합니다.

역도산: (일본말로) 돌아가라!

김일: (일본말로) 선생님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역도산: 레슬링이란 쓸데없는 힘만 믿고 덤빌 만큼 만만한 게 아냐.

김일: 선생님. 거뿔 주십시오.

역도산: 널 받아주면 나한테 뭘 줄 수 있지?

김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역도산: 시간 낭비 말고 돌아가라.

김일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쪽으로 걸어가는 역도산.

김일, 안되겠다 싶은지, 엄청난 소리의 기합을 내지르며 마감이 덜된 체육관 벽을 머리
로 들이박는다. 팡! 다시 한번 들이박는 김일. 팡!

역도산이 돌아보면,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김일의 이마에서 피가 낭자하다.

또다시 벽에 들진하는 김일,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뒤로 나가떨어져 댕자로 뺏는다.

그런 모습을 보더니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역도산.

58.썬 일본 프로레슬링 현판식 (낮)

자막: 1953년 7월

역도산, 닛다와 나란히 일본 프로레슬링 현판을 들고 서 있다.

닛다: 역도산, 기무라를 만나라. 이제 기무라가 필요하다.

역도산: 시간나는 대로 만나겠습니다.

닛다: 오늘 당장!

역도산: ... 예.

터지는 기자들의 플래쉬 불빛. 사진은 신문기사가 되어 화면 위로 떠오르고.

59. 씬 아야의 집 앞

현관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야.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오더니 집 앞에서 멈춘다. 뒷좌석에서 내리는 역도산. 집을 훑듯 본 후, 아야 앞에 선다.

아야: 소식 들었어요. 좋아보여요.

역도산: ... 여긴 그대로네.

아야: (현관 쪽으로 가며) 식사 준비했어요. ... 목욕물두요.

역도산: 바로 가 봐야 돼.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주며) 생활비 좀 넣었어.

아야: (받고) 많이 바빠요?

역도산: (아야를 뻔히 보다) 옷도 좀 사입고, 화장도 하구 그래.

아야: 했는데. ... 이상해요?

역도산: 갈 꺼. (차에 오른다)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는 아야. 손에 들린 돈봉투.

60. 씬 변두리 거리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을 혼자서 우산도 안 받고 걸어가는 역도산. 하늘도 어둡고, 주위의 목조가옥들도 비를 맞아 시꺼멓다. 좁은 골목의 흙탕길을 지나 더러운 물이 흐르는 하천가를 따라 걷는 역도산. 비에 젖은 고양이 가 하천변의 둔덕에서 오돌오돌 떨어져 가 날뜨게 야옹거리는데, 역도산은 묵묵히 갈 길을 재촉한다.

61. 씬 기무라의 노천 시합장

하천 끝에 초라하게 천막을 치고, 비에 젖어 축 늘어진 깃발을 달아 놓은 가설 무대가 보인다. 유도 황제 기무라를 그린 간판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고, 관중석에는 촌로 몇 사람이 앉아서 경기를 관전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풍경이다.

매표구를 지나 링 사이드로 걸어가는 역도산.

링 위에서는 기무라와 그의 제자가 서로 겨루고 있으나, 맥빠진 경기이다.

그러나 기무라가 전광석화 같은 솜씨로 제자를 매치기 한판으로 제압할 때는 그의 무서움이 잠깐 빛을 발한다. 쓰러진 제자를 두고 몇 안 되는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는 기

무라. 그의 얼굴에는 음침함과 삶의 피곤함, 어두움이 잔뜩 베어있다.

<시간 경과>

땀에 흠뻑 젖어 링에서 내려오는 기무라에게 깍듯이 목례하는 역도산.

역도산: 선생. 처음 뵙겠습니다.

기무라: (돌아서서 역도산을 아래 위로 훑어 내리며) 누구신가?

역도산: 프로 레슬러 역도산입니다.

기무라: 역도산?

역도산: 선생의 명성은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선생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무라: 나보고 회장이 되라는 건가?

역도산: 그건 아니고,

기무라: 생각없소.

기무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 못마땅하게 기무라를 보던 역도산.

역도산: 나는 개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의 회장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기무라: (그대로 걸어가며) 회장이 누군가?

역도산: 닷다 건설의 닷다 신사쿠 회장님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역도산을 돌아보는 기무라. 마주 보는 역도산.

62.썬 요정

거구의 백인 레슬러들의 시합 사진들이 차례로 보여지며 역도산의 목소리가 들린다.

역도산(목소리): 샤프 형제는 세계 태그 매치 챔피언입니다. 그들은 형제 특유의 호흡을 바탕으로 가공할 공격을 해줍니다.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힘들 것입니다.

닛다와 흥행사들이 등석한 가운데, 역도산이 기무라에게 서류봉투를 건넨다.

역도산: 자료입니다.

기무라: (보지도 않고) 필요없소.

일순 찬 기운이 들자, 분위기를 바꾸기위해 나카다 사장이 나선다.

나카다: 기무라 7단이 이렇게 와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아부성 덕담들이 기무라에게 쏟아진다.

기무라: (잔을 들어 닷다에게 보이며) 회장님. 제 잔이 비었습니다.

다시 싸늘한 긴장이 들고, 나카다가 '제가'하며 나서는데,

기무라: 당신은 빠져!

얼굴이 붉어진 역도산이 벌떡 일어나는데, 손을 들어 역도산을 저지하는 닷다.

닷다: (술병을 들어 기무라의 잔을 채워준다) 미안합니다.

기무라: (잔을 비운 후) 무도인의 명예를 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닷다: 선생. 나아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기무라가 닷다에게 잔을 따르고, 두 사람이 건배하려는데,

역도산: 텔레비 중계 말인데요, 예산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나카다: 그가 꼭 해야되는 겁니까?

역도산: 예?

나카다: 프로레슬링이라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그래도 국기관이 텅텅 빌까봐 걱정인데, 텔레비에서 중계까지 하면 누가 보러 오겠소?

홍행사2: 격투기는 역시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게 제일 아니요?

닷다: 기무라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오?

기무라: ... 전 텔레비 따윈 아무래도 좋습니다. 시합만 생각할 뿐입니다.

과연 기무라! 라는 투로 웃는 홍행사들.

특히 기무라의 대답에 감탄한 듯한 닷다의 웃음이 역도산의 눈을 아프게 한다.

역도산: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은 중요합니다. 텔레비가 없으면 프로레슬링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다.

역도산: 좋습니다!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내려놓고) 제가 미국에서 피흘리며 싸워 번 돈입니다. 이 돈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막지만 마십시오!

63. 씬 거리 (낮)

자막: 1954년 2월

미니 버스에 달린 커다란 확성기에서 행진곡이 흘러나온다. 버스에는 역도산과 기무라, 샤프 형제의 모습이 커다랗게 그려져 있다. 버스를 선두르 하고, 다음으로 따라오는 무개차에 꽃다발을 건 거구의 벤 샤프와 그의 동생 마이크 샤프, 그리고 역도산이 나란히 서서 거리의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든다.

인도에는 꼬맹이들이 처음 보는 희안한 광경에 넋을 잃은 채 쫓아다니고, 어른들은 거구의 샤프형제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함박 웃음을 터뜨리는 역도산.

64. 씬 호텔 복도 (밤)

복도를 걸어가는 역도산. 끝방 앞에 야쿠자 풍의 사내 두 명이 서 있다.
역도산을 보자 깡뚫이 인사하는 사내들. 역도산, 인사를 받아준다.
사내들이 노크를 하자, 잠시 후 문이 열린다. 벤 샤프가 보인다.

벤 샤프: 어이, 리키.

역도산: 벤. 불편한 건 없고?

65. 씬 호텔 방 안 (밤)

역도산과 벤 샤프 마주 앉아 있고, 동생 마이크는 침대에 누워 있다.

벤샤프: 리키, 이제 보니 자네 일본에서는 거물이잖아?

역도산: 그렇지도 않아. 아직 멀었어.

벤샤프: 리키, 너희 일본인들은 미국에 원망이 많을 텐데, 내일 경기장에서 우리 안전이 보장될까?

역도산: 전쟁에서 진 일본인들이 자네들을 좋아 할 리는 없지. 하지만 말야, 일본인들은 전쟁에서 지고 나서 미국인이란면 기가 꼭 죽어지내는 판이야. 무서워서 자네들 근처도 못 갈 걸세.

벤샤프: 믿어도 돼나?

역도산: 그럼. 날 믿어. 벤.

마이크샤프: 어이 잼! 난 진주만을 안 잊었어. 치사한 새끼들.

벌떡 일어나는 마이크, 선들로 받은 일본 전통 인형을 들고 있다.

마이크샤프: 리키! 난 링 위에 올라가면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아무 것도 안 들려. 정신을 차려보면 리키, 니 목이 부러져있을 지도 몰라. (인형의 목을 비틀어 꺾은 후 역도산에게 던진다)

벤샤프: 마이크. 실례잖아. 미안하다. 리키.

역도산: 아, 괜찮아. 벤. (목이 뽑힌 인형을 보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자네 둘 뿐이네. 내 목을 부러뜨릴 수도 있는 자네들 둘 뿐이야.

역도산, 상념에서 깨어나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봉투를 꺼내 벤샤프에게 건넨다.

역도산: 벤. 이걸 용돈이야.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놀라구.

66. 씬 국기관 체육관 (저녁)

자막: 1954년 2월19일

<프로레슬링 세계 태그매치 결정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카메라가 그 위를 보여주면, 체육관의 천장에는 쓰리아네(일명 '매달린 천장' 스모 경기 때 경기장 천장에 매달아 놓은 지붕)와 역대 요코즈나의 대형 흑백 초상들이 나란히 걸려 있다. 전통적인 스모가 새 스포츠 프로레슬링을 짓누르는 형국이다. 혹은 새로운 스포츠가 낡은 전통에 도전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관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고요하던 체육관이 점차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67. 씬 거리 (저녁)

거리에 설치된 텔레비전 수상기, 오픈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 행인들은 그냥 자기 길을 갈 뿐.

꼬마 한 명이 걸음을 멈추고 보다가, 엄마에게 군밤을 맞고 끌려 간다.

<우동집>

입구에 <텔레비전 설치>라는 작은 간판을 걸려있다. 한 명밖에 없는 손님은 먹는 데 열중하고 있고, 점원들 중 한 명만이 흑백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오픈게임을 본다.

68. 씬 역도산의 라커룸

흐린 백열등 아래 돌아앉아 있는 역도산, 땀이 흘러내려 낫직한 등판이 번들거린다.
고개를 숙인 그가 숨을 쉴 때마다 양 어깨가 들썩인다.
물을 한모금 마시고 벌떡 일어나는 역도산. 자세를 취하고 허공을 향해 가라데 춤을 날린 후,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다시 한번 가라데 춤을 날린다.
잠시 가빠진 숨을 고르며, 가방에서 약을 꺼내는 역도산, 여러 종류의 알약을 차례로 삼키는데, 갑자기 라커룸의 문이 열리며,

후배 레슬러: 선생님!

역도산: 바보자식! 노크도 모르나?

후배 레슬러: 죄송합니다. (다시 달고 나가려고 한다)

역도산: 무슨 일이야?

후배 레슬러: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약을 먹은 후, 태양과 파도가 그려진 화려한 가운을 걸치는 역도산, 문을 나선다.

69. 씬 경기장 복도

어둠 킁킁하고 끝이 안 보이는 긴 복도가 역도산의 눈 앞에 드러난다.
때마침, 기무라가 라커룸에서 나온다. 기자들이 그와 같이 쏟아지듯 나온다.
이때 기자들 중, 난장이 똥자루 만한 대머리의 양복쟁이가 기무라에게 달려들어,
웃소매를 잡고 넘기는 시늉을 하자, 기무라 넘어가 주는 제스처를 보인다.
기자들의 사진기 후레쉬가 터지고 좌중은 웃음이 터진다.

양복쟁이: 내가 기무라를 넘겼어. 한판입니다! 기무라 선생.

사람 좋게 웃어주는 기무라. 역도산을 발견하더니 고개를 한번 까닥한다.
그리곤 기자들을 대동하고 경기장으로 걸어가 버린다.
역도산, 혼자 남아 요란하게 입장하는 기무라의 뒷모습을 본다.
숨을 고르는 역도산, 후배 레슬러 세 명이 뒤에 와 선다.
역도산도 경기장으로 걷기 시작한다.
한발한발 내디딜 때마다 관중들의 환호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70. 씬 링

링 위에선 역도산과 기무라.

역도산, 관중석을 천천히 둘러 본다. 관중석은 60% 정도만 차 있다.
천정을 올려 보는 역도산. 역대 요코즈나의 사진들이 위용을 자랑한다.
역도산, 어쩔 수 없이 씩씩한 기분이 든다. 문득 기무라를 보면, 기무라 역시 경기장 천정과 사진들을 보고 기분이 씩씩한 눈치다. 아마도 유도를 떠난 자신의 처지가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역도산, 등병상린의 기분을 전하러 기무라의 어깨를 두드리는데,
자신의 기분을 들킨 것 같은 기무라, 인상을 구기며 외면을 한다.
기무라의 외면에 화가 치미는 역도산.

이 때, 서문 입구가 슬렁이면서 실크 셔츠를 입은 거구의 샤프형제가 등장한다.
일본인 관중들은 그들의 등장에 두려움을 느껴 일순 조용해진다.
링 위에 서 있는 역도산과 기무라의 작은 몸과 비교하고는 고개를 설래설래 젓는다.

71.썬 시합 1회전

‘와’하는 함성소리. 살이 부딪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기무라, 입에서 피를 허공에 흩뿌리며 링 바닥에 광하고 떨어진다. 사정없이 들진하는 벤 샤프, 기무라의 다리를 들어 올려 보스턴 브릿지를 한다.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기무라.
링 사이드의 역도산, 발을 뚱뚱 구른다.

역도산! (손을 내뻗으며) 기무라 교대! 교대!

그러나 오히려 상대가 교대를 하고, 이번엔 마이크 샤프가 기무라의 팔을 잡아 암흑을 건다. 시뻘겋게 피가 물리는 기무라의 팔. 우드득 이 갈리는 소리가 들리고 관절이 어긋난다. 땀과 피가 두 사람의 몸에서 번들거리고, 마이크 샤프가 더욱 힘을 주자, 기무라, 신음을 내뱉으며 무릎을 꿇는다.

역도산: 기무라 빠져나와! 교대해라.

72.썬 시합 2회전

땀하는 종소리와 함께 링 가운데로 튀어나오는 역도산.
마이크 샤프, 자신의 엄청난 덩치를 과시하며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레벨 크라이’를 외치고 역도산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역도산, 좀 전 기무라의 복수를 하려는 듯, 번개처럼 달려들어 마이크의 가슴에 뺧-하고 소리도 요란하게 가라데 춤을 날린다.
거구의 마이크가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진다.

순간, 관중들은 경악한다. 이럴 수가! 미국인이 나가 떨어지다니!
 비실대며 다시 일어나는 마이크에게 또 역도산의 가라데 춤!
 벌렁 뒤집어지는 마이크.
 역도산, 달려들어 일어나는 마이크에게 다시 한번 가라데 춤!
 순간 관중들의 함성이 폭발한다.
 마이크, 몹시 고통스러운 듯 역도산을 피해 벤과 교대한다.
 링으로 나온 벤, 역도산이 가라데 춤을 날릴 기세를 보이면 기겁을 하고 도망친다.
 '와'하는 함성소리.
 이제 관객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놀라운 광경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방방 뜨는 역도산과 흥분하는 관중을 바라보는 기무라. 얼굴이 어두워진다.

73.썸 시합 3회전

기무라, 이전 라운드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단단하다.
 자신의 주특기인 한 팔 업어치기로 벤을 공중 위로 날려버린다.
 큰 원을 그리며 허공을 날아가는 벤.
 관중들의 탄성!
 '쿵'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링 바닥에 떨어진 벤.
 그러나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기무라를 향해 돌진해 온다.
 마치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않은 것 같다.
 기무라, 다가오는 벤과 링사이드의 역도산을 번갈아 본다. 뭔가 음모가 있다는 걸 직감
 한 것이다.
 두 레슬러, 양손을 마주잡고 힘 겨루기에 들어간다.
 힘에서 벤을 당할 수는 없다. 기무라, 무릎을 꿇고 찻찻 맨다.
 관중들은 아쉽다는 탄성을 내고,
 손을 빼서 빠져나온 기무라, 역도산과 벤 샤프, 그리고 관중들을 차례로 쏘아본다.
 기무라, 다시 한팔 업어치기를 시도해 벤을 넘어뜨리고는, 곧바로 팔꿈치의 날을 세우
 고 몸을 날려 벤에게 엘보 드롭을 꽂아 넣으려 한다. 간발의 차이로 벤이 몸을 굴러 피
 하고 기무라의 엘보 드롭은 링 바닥에 꽂힌다.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벤. 한편, 마이크는 기무라의 행동을 보더니 피가 거꾸로 치솟는
 모양이다. 형을 마구 불러들여 터치하곤, 자신이 뛰어나간다.

엘보 드롭을 실패한 기무라가 미처 자세를 잡기도 전에 마이크의 드롭킥이 기무라의
 목을 강타한다. 그대로 뺨어 버리는 기무라. 마이크, 기무라의 몸을 덮쳐 풀을 유도하는
 데, 역도산 링으로 뛰어 들어온다.

마이크의 머리채를 붙잡고 박치기를 날리는 역도산.

마이크의 얼굴이 순식간에 피범벅이 되고,
역도산, 기무라의 복수를 하듯 로프 반등을 이용해 드림킥을 날려 마이크를 뺏게 만든다. 그러나 이 때 심판이 나서서 역도산에게 반칙을 선언한다.
역도산, 이미 이성을 잃었다. 심판을 밀어내고 링 안으로 들어온 벤에게까지 가라데 춤을 날린다. '쿵' 하고 쓰러지는 벤.

74.씬 시합장 주변 스케치 (밤)

광장에 설치된 텔레비전 주위로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다. 자꾸자꾸 더 모인다.
한산하던 광장은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고, 역도산의 가라데 춤이 터질 때마다 함성이 터진다. 사고나 폭등으로 오해한 경찰 기마대가 출동하여 사람들 사이를 다닌다.
우등집은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차서, 문 밖 골목까지 사람들로 가득하다.

75.씬 시합 3회전 후반 (밤)

역도산, 얼굴에 가득 피를 묻히고 자세를 잡는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처럼.
피를 흘리며 일어나는 마이크에게 인정 사정없이 날아가는 가라데 춤.
벤이 엉금엉금 기어 도망치려 하자 역도산 쫓아가서 다시 박치기!

관중들은 이제 미쳐버리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는 늑은이.

벤과 마이크가 찢찢 매며 역도산의 가라데 춤에 유린당하고,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심판이 물수게임을 선언하지만, 역도산은 가라데 춤을 계속 날린다.

눈물을 줄줄 흘리던 늑은이, 마치 유령에 홀린 듯 일어난다.

그리고는 두 손을 높이 들어 '일본 만세!'를 외친다.

마치 감염이라도 된 것처럼 관중들 자리에서 일어나 '일본 만세'를 외친다.

샤프 형제를 피범벅으로 만들어 링 바닥에 뉘였으나, 역도산에게 반칙패를 선언하는 심판.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축 늘어져 있는 벤 샤프의 팔을 심판은 억지로 끌어 올려 승리를 선언하지만, 거의 모든 관중들은 위대한 패자 역도산을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일본 만세를 외친다. 눈물을 줄줄 흘리며 부르는 관중들의 만세는 끝날 줄을 모른다.

76.씬 역도산의 체육관 앞 (낮)

체육관 문 앞에 레슬러들이 도열해 있다. 문이 열리자, 닛다회장과 역도산이 나온다.

넛다, 긴장한 표정으로 맨 앞에 선 채 도로 끝을 바라본다.
역도산도 웃매무새를 자주 만지다 뭔가를 보곤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다.
스르륵 역도산 일행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선다.
차 앞에서 펠럭거리는 깃발에는 황족을 상징하는 문양이 그려져있다.
문이 열리며, 중년의 산류황족이 그의 아들이자, 유치원생인 어린 황족을 데리고 차에서 내린다. 운전수도 없이 손수 운전을 해 온 것이다. 황족들, 역도산에게로 다가간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고,

역도산: (절하며) 각하. 이런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류황족: 역도산 선생! 당신은 일본 제일의 사나이입니다.
역도산: (홍분해서 목이 갈라지며)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눈물을 흘린다)
산류황족: 일본 제일의 사나이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역도산: (울음을 애써 참으며) 각하! 역도산은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황족다운 풍모로 미소를 지으며 역도산과 악수하는 산류 황족.
그런데 역도산, 너무 흥분했는지 넛다를 황족에게 소개하는 걸 빼먹는다.
자신을 버려둔 채 황족을 도장으로 안내하는 역도산을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짓는 넛다.

77.썩 역도산의 체육관

황족 일행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맞은 편 벽에 역도산의 거대한 사진이 걸려있다.
검은 타이즈를 입고, 옆구리에 양 손을 올린 채 활짝 웃는 역도산의 모습.

<시간 경과>

자리에 앉은 황족. 그 옆에 넛다 회장이 두 손을 모아 공손히 하고 서 있다.
링 위의 역도산, 앤도와 시범 경기를 한다. 어린 황족을 위해 로프 반등을 이용한 드림 킥과 플라잉 넥 시저스, 브레인 바스타, 브롱커 바스타 같은 몸 동작이 크고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다. 어린 황족은 역도산의 화려한 기술에 거의 넛을 잃고 박수를 친다.
시범경기를 끝내고 앤도와 나란히 인사하는 역도산.
황족이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거듭해서 절하는 역도산과 앤도.

산류황족: 잘 봤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

넛다 / 역도산: 감사합니다.

산류황족: 그런데 기무라 7단은 여기 없나요?

넛다: 예. 기무라,

역도산: (넛다의 말을 끊으며) 각하! 기무라는 프로레슬러로서 실패작입니다.

넛다: (역도산의 말을 끊으며) 기무라 7단은 <국제 프로-레슬링단>을 조직해

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류황족: 조금 복잡하군요.

역도산: 각하!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아무리 많아도 정통 격투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저희뿐입니다. (링밑의 도요노보리를 향해) 그걸 가져와!

도요노보리, 야구방망이를 들고 링 위로 올라온다.

역도산, 눈짓한다. 도요노보리, 야구방망이로 역도산의 등과 배를 내려친다.

기합소리가 날 때마다 방망이가 살에 부딪치는 소리가 난다.

역도산의 배와 등이 빨갛게 부어오르더니 피가 난다.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도요노보리.

역도산: 도요노보리! 더 쉼게!

때리면서 지쳐가는 도요노보리,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고 다시 때리려는데,

산류황족: 됐습니다. 역도산 선생! 충분히 봤습니다.

역도산: 아닙니다. 각하. 아직 절반도 보지 못하셨습니다. 계속해!

다시 때리는 도요노보리, 아까보다 더 쉼게 때린다.

역도산, 황족의 어린 아들을 보며 과장되게 웃는다. 극심한 고통과 전투하듯 웃어제끼는 역도산의 모습은 어딘지 기괴해 보인다. 여태까지 마냥 즐거워하던 어린 황족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트린다. 당황한 역도산, 어쩔 줄 모르는데, 황족이 아들을 달랜다. 매서운 눈빛으로 역도산을 보는 낫다.

78.썩 기무라의 노천 경기장 (밤, 비)

기무라의 프로 유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시바 기자.

검표원이 없는 매표구를 지나자, 텅 빈 경기장이 눈에 들어온다.

지붕에서는 실 새 없이 빗물이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전등볼도 하나를 남기고 다 꺼버려 몹시 어둡다. 링 위에서 두 명의 제자를 상대로 업어치기를 하는 기무라.

낡고 더러운 링 바닥에 제자가 떨어지자, 고여있던 빗방울이 사방으로 튀긴다.

기합을 넣고 다시 제자를 잡아 던지는 기무라.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나가떨어지는 제자. 뭔가 분노에 찬 듯한 기무라의 기합소리.

<시간 경과>

텅 빈 관중석 한 칸에 나란히 앉은 기무라와 시바. 시바는 기무라에게 낡은 신문 스크랩 한 장을 내민다. <기무라 마사히코, 천람시합 5연속 한판승>

시바: 제 이름으로 나간 첫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 최강의 사나이는 기 무라다.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틀 렸습니까?

말없이 신문에 난 전성기의 자신을 보는 기무라.

시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선생의 결심만 남았습니다. ... 이 신문은 선생 께 드리죠.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시바. 혼자 남아 어둡고 낡은 경기장을 보는 기무라.

79.썬 역도산의 새 집

거실 바닥에는 불곰이 아가리를 짝 벌린 채 깔려있고, 나무 밀등을 잘라 만든 테이블과 고급소파들이 보인다. 가구 하나하나는 고가품인 게 확실하나,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 유치하고 천박스럽다.

아아가 문을 열자, 후배 레슬러들이 들어온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운운하며 시끌시끌하다.

도요노보리: 사모님. 오늘은 아무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음식까지 다 준 비해서 왔습니다.

아야: 예? 뭐하러 그러셨어요.

도요노보리: 혹시 불고기 좋아하십니까?

아야: 불고기요? 맛있겠어요.

불고기와 화로 등을 내려놓는 제자들.

소리(역도산): 불고기를 사 온 게 누구냐?

제자들이 돌아보면, 역도산이 서있다. 그의 입가엔 묘한 미소가 어려있다.

선생이 즐거워서 그런 줄 알고, 도요노보리가 나선다.

도요노보리: 선생님. 싸게 샀습니다. 키타로가 잘 아는 가게라 엄청 싸게 샀습 니다.

쓱스럽게 웃으며 앞으로 나서는 키타로(김일).

김일: 불고기 집 주인이 선생님도 가끔 드신다고 해서.

역도산, 옆에 있는 골프채를 집어든다. 천천히 앞으로 나선다.

역도산: 그래. 간단타로, 내 집에 마늘냄새를 풍기겠다. 이거지?

김일: 예?

역도산: 이 새끼들아. 지금 기무라는 날 잡아먹을려구 야쿠자들까지 끌여들여
서 훈련을 하는데, 너흰 불고기나 처떡고 흥청거릴 생각이나? 어? 개
새끼들! 아예 날 죽여라! 죽여!

골프채로 김 일의 어깨를 내려치는 역도산, 주저앉은 김일을 내쳐 한 방 더 친다.

이마를 정통으로 맞고 뒤로 넘어가는 김 일.

역도산, 닥치는 대로 골프채를 휘둘러 제자들을 팬다. 제일 먼저 도망치는 도요노보리.

역도산, 불고기와 야채, 화로 등을 집어 마당으로 던진다.

창문을 깨고 날아가는 상자들.

80.씬 새 집 앞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추더니, 사진기를 든 남자 한 명과 잘 꾸민 여자 한 명이
내린다. 서구적인 외모의 여자는 가슴이 깊이 패인 원피스를 입고, 썬글래스를 꼈다. 여
자가 집을 보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혼비백산한 레슬러들이 쏟아진다.

소리(역도산): 이 멍청한 새끼들! 다 나가 죽어!

마지막으로 뛰어나온 남자, 흐트러진 머리와 복장의 역도산이다.

여자는 빨리 역도산을 쳐다본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은 표정.

역도산: 뭐야?

사진사: 아, 안녕하십니까. 역도산 선생님. 저흰,

여자: (말을 자르며) 오키 하마코입니다. (썬글래스를 벗고) 텔레비에서보다 젊
으시네요.

81.씬 집, 정원

역도산과 하마코의 사진 촬영 장면이 빠르게 보여진다.

하마코는 스스럼없이 역도산의 팔짱을 끼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기도 하고, 그의 굵은
팔뚝에 매달리기까지 한다. 조금씩 장소를 옮겨가며 사진 촬영이 계속 된다. 신나서 촬
영하는 세 사람과는 달리,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요시마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다.

<2층 방>

창가에 선 아야, 젊은 여자와 다정한 포즈로 사진찍는 남편을 창 너머로 본다.
하마코는 급기야 역도산의 볼에 가벼운 도둑 키스를 한다.
커튼을 달아버리는 아야.

<정원>

사진사: 수고하셨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역도산, 한 쪽에 마련된 테이블로 간 뒤, 하마코가 앉을 의자를 빼준다.

역도산: 하마코 씨 역시 일본을 대표하는 대배우시군요. 덕분에 간신히 해냈습
니다.

촬영 때 쓰던 소품 모자를 만지작거리다 획 던지는 하마코.

하마코: 싸구려! 맘에 안들어.

역도산: 괜찮으시다면, 제가 하나 사 드릴까요?

하마코: 정말요? 제가 좋아하는 건 비싼데요.

역도산: 미인에게 어울리는 거라면 당연히 비싸야죠.

못마땅한 표정의 요시마치.

82.씬 긴자의 옷가게들

고급 여성복 매점들을 여러 군데 들리며 옷을 입어보는 하마코.
그런 하마코를 보며 호탕하게 웃는 역도산.

<가게 앞>

옷가방을 들고 나오는 요시마치. 하마코는 먼저 차에 탄다.

요시마치: 사장님! 부자가 되려면 말이죠.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됩니
다.

역도산: (웃으며 차안의 하마코를 본다) 요시마치. 일본 최고의 미녀배우라면,
꽤 괜찮은 수입 아니냐? (차에 탄다)

83.씬 호텔 방

가득 채워지는 두 개의 포도주 잔. 하마코와 역도산이 건배하고 마신다.

역도산: 하마코 씨. 새 영화는 언제 찍으시죠?

하마코: (돈금없이) 선생님. 크리스마스엔 뭘 하실 거예요?

역도산: 예? 글썄요.

하마코: 크리스마스에 혼자라면 너무 쓸쓸할 거예요. 그렇죠?

역도산: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하더군요.

하마코: 멋지다. 우리도 약속해요!

역도산: 약속?

하마코: 하마코는 크리스마스에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역도산: 하하! 이거 영광입니다.

하마코: 반드시! (상체를 밀착하며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하마코의 흥만한 가슴이 옷 속에서 요동친다. 역도산, 대답 대신 하마코를 번쩍 들어안는다. 하마코, 놀라며 소리지르지만, 곧바로 역도산에게 몸을 맡긴다. 역도산, 하마코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옷을 벗기려다, 잘 안되자 부우욱 찢어버린다.

이 때, '똑똑' 노크소리가 들린다.

역도산: 뭐야?

소리(요시마치): 사장님. 요시마칩니다.

역도산: 나중예! (다시 하마코를 덮치려는데)

소리(요시마치): 지금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흥이 깨진 하마코가 역도산을 밀치고 침대로 간다.

화가 난 역도산,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연다.

요시마치: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걸 좀 보십시오.

요시마치는 신문 여러 부를 내민다. 역도산, 받아들고 읽는다.

<세기의 대결! 기무라, 역도산에 도전>

<현대판 암류도의 혈투, 누가 미야모토 무사시이고, 누가 사사키 고지로인가?>

<기무라 고발, 역도산의 레슬링은 쇼>

뭔가 곰곰히 생각하는 역도산.

요시마치: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역도산: (신문을 돌려주고) 호텔 예약을 해 뒀.

요시마치: 예?

역도산: 크리스마스, 제일 높은 층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는 역도산.

84.썸 조인식 관련 스케치

신문의 헤드카피와 사진들이 차례로 화면에 펼쳐진다.

<역도산과 기무라, 시합 조인서에 드디어 싸인>

<유도 선수들과 스모 선수들 간의 패싸움>

두 사람의 시합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는 거리 전파상 앞에는 행인들이 구름.

신문 배달소년들은 거리를 뛰어다니며 호의를 외치고.

85.썸 닷다의 집

유리문 너머로 잘 가꾼 정원이 보인다. 어디선가 '툽, 툽' 하는 소리가 들린다.

닛다가 가위로 다시마를 자르자, 흰 천 위에 하나씩 떨어진다.

미달이 문이 스프록 열리자, 문 밖에는 역도산이 머리를 숙이고 서있다.

역도산을 힐끗 보더니 계속 다시마를 자르는 닷다.

역도산: 회장님! 들어가겠습니다.

닛다, 살며시 고개를 끄덕인다. 조심스럽게 들어와 닷다 앞에 앉는 역도산.

역도산: 다시마 아십니까?

닛다: 그냥 다시마가 아냐, 약이야. 이게 건강에 그만이지.

역도산: ... 회장님. 기무라 건은.

닛다: 너도 하나 먹어볼래?

역도산: 예? ... 아닙니다. 전 서양의 화학약품 외엔 믿지 않습니다.

닛다: 서양약은 위험해. 한방이 좋아. 너도 이제 슬슬 건강을 생각할 나이야.

건강이 인생에서 최고야.

역도산: ...

닛다: 기무라는 건강이 최고라고 동의했다.

계속해서 다시마 자르기에 몰두하는 닷다; 그런 닷다를 가만히 보는 역도산.

86.썸 역도산의 체육관

헬스 기구를 이용해 운동하는 역도산. 벤치프레스를 들어올리며 땀흘린다.
옆에서 도요노보리가 스텝워치를 들고 시간을 잰다.
링 위에서 번갈아 덤비는 도요노보리와 김 일을 상대하는 역도산.
부지런히 움직이며 여러 가지 기술을 시험한다.

87. 씬 쿠마모토의 산 속

들계단을 서너 개씩 뛰어오르는 기무라. 덩수룩한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이 벌써 여러 날 째 이어진 훈련의 강도를 짐작하게 한다. 계단의 끝에 오르자 검은 양복을 입은 규수의 야쿠자들이 보인다. 그들 중 한 명이 기무라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를 전한다.

88. 씬 역도산의 집, 밤

거실에서 아야가 요시마치에게 차를 대접한다. 고맙게 마시는 요시마치. 아야는 핏기없는 얼굴로 삶에 지친 티가 역력하다. 찻잔을 받쳐 들고 한 모금 마신 요시마치,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이 때, 천장에서 깔깔대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곧이어,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사 때의 여자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아! 아! 역도산!”

요시마치: (주의를 돌리기 위해 괜히 벽의 사진을 가리키며) 저건 뭐죠? 사장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 같은데, (신음소리를 듣고) 뭐, 지금도 젊으시지만.

아야, 말없이 한 쪽 벽에 걸린 사진을 본다.
지난 날, 역도산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 쿵, 쿵 하는 소리가 점점 격해지며 액자도 조금씩 흔들린다. 사진을 보는 아야의 눈에서 눈물이 한방울 특 흐른다.

요시마치: 사모님이 회장님을 사장님보다도 먼저 아셨다면서요?
아야: (눈물을 훔치고) 예. 제가 회장님을 먼저 만났죠.
요시마치: 어땠습니까? 우리 사장님 어렸을 땐?

아야가 말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역도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리(역도산): 더러웠지.

벌떡 일어나는 요시마치. 아야는 그대로 앉아있다.
2층에서 내려온 역도산, 벗은 옷통에 땀이 번들번들하다.

역도산: 더러웠어.

요시마치: 사. 사장님.

여기저기를 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역도산.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하다.

아야: 지금처럼 더럽진 않았어요.

역도산: (아야를 힐끗 보고) 아야. 원하는 게 뭐야? 순수했던 옛날로 돌아가자
구? 레슬링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들어서 오손도손 살까? 응? 원하는
게 그거야?

아야: 할 수만 있다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역도산: 낫다 회장도 나보고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더니, 들어서 짚어? 어? 짚
거야?

아야: 대답하지 않겠어요.

역도산: 왜? 남편 말이 우스워?

요시마치: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역도산: 이 새끼가! (의자를 집어들어 요시마치 쪽으로 집어던진다) 아야. 약이
왜 없지? 어? 약 어딴어?

아야: 버렸어요.

역도산: 뭐? 어쨌다고?

아야: 다 버렸어요. 내가.

역도산, 달려와 아야의 따귀를 때린다. '철썩' 소리와 함께 날아가는 아야.

깜짝 놀란 요시마치. 소파 뒤로 넘어진 아야를 부축한다.

아야는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다.

아야를 때린 자신에 대해 놀랐지만, 약이 없다는 불안감에 쫓기며 어쩔 줄 모르는 역도
산. 이 때, 2층에서 별거벗은 여자가 내려온다.

여자: 왜 빨리 안와요? 금방 온다고 해놓고.

역도산: 올라가! 내려오지 말라고 했지!

여자: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중시령대며 올라간다)

요시마치: 사모님! 사모님!

역도산: 다 버렸을 린 없어. 어딘가 있을텐데.

역도산, 약을 찾는다면 거실 이곳 저곳을 헤집어놓고, 부순다.

역도산: 약이 있어야 되는데, 약 어딴어? 씨팔. 싸울려면 약이 필요한데.

89. 씬 진명근의 불고기 집 앞 (밤)

고요한 거리, 검은 그림자의 발소리가 정적을 깬다.

불고기 집 간판 아래 멈춰서는 검은 그림자. 그는 조심스럽게 함석으로 만든 칸막이를 두들긴다. 살짝 두들겼는데도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동네 개들이 사방에서 짖어댄다. 다시 한번 두들기자, 안에서 잠이 덜 깬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진명근: 누구요?

그림자: (조선말을 작은 소리로) 명근이 나야. 김신락이. 신락이라구.

진명근: (놀라며 조선말로) 신락이?

덜컹 소리가 나며 열리는 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불빛에 그림자의 얼굴이 드러난다. 역도산이다. 불안한 듯 주변을 계속 살피다 명근을 보고 어색하게 웃어준다.

90. 씬 불고기 집 골방

숯불 화덕 위에는 지글지글 불고기가 익고 있고 역도산은 실새 없이 불고기를 입에다가 가져간다. 불판 위에 고기가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다.

진명근: 더 먹겠나?

역도산: 그러지.

진명근: (골방문을 열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고기 좀 더 가져와.

돌아서, 역도산에게 술을 따라준다. 하지만 역도산의 눈은 열려져있는 문에 가 있다.

역도산: 문은 닫지.

진명근: 그래. (문을 닫는다)

역도산: 장산 잘 돼?

진명근: 그렇지. 뭐. ... 시합준비는 잘 돼?

역도산: 문제없어. 난 전혀 문제없어. 다만, 내 주변이 문제야. 믿을 놈이 없어.

회장, 제자, 마누라까지. 다 한통속으로, 날 믿질 않아.

진명근: 오늘 왔으니, 자넨 또 한참 있다 오겠군.

역도산: 기무라만 꺾고 나면, 한 숨 돌릴 수 있을거야. 그 땐 자주 오지.

진명근: 하지만 그 땐 내가 여기 없을거야.

역도산: (먹기를 멈춘다) 없다고?

진명근: 신락이. 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네. 북조선의 귀국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어. 어제 서명했다.

역도산: 언제 가는데?

진명근: 보름 후에.

역도산: 불고기도 이젠 다 먹었군.

진명근: 신락이.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해도 될까?

역도산: ... (술잔을 비운다)

진명근: 적어도 이 동네 사람들은 역도산이 조선 사람이란 걸 알고 있네. 아마 많은 일본인들도 지금쯤 그런 의심을 하고 있을거야. 신락이, 이제 그만 조선인임을 밝히는 건 어떤가?

먹기를 멈춘 역도산,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대고 잠시 생각에 잠긴다.

역도산: 조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진명근: 신락!

역도산: 일본이, ... 미국, 소련이 조선인한테 한 거 보다, 조선이 조선인한테 한 것이 난 더 미워. 내가 고향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치자. 조선 전쟁 때, 총알받이가 되어 튀지지 않았겠어? 몸집이 커서 적군이 맞추기도 편했을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대가리를 박살낼 총알이 미제냐, 소련제냐, 정도겠지. 아니 그거나 내가 선택할 수 있었을까? ... 난 일본이고, 조선이고, 그런 거 몰라. 난 역도산이고, 난 세계인이다.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역도산. 골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진명근: 그러단 너, ... 혼자 외롭게 죽게 돼.

역도산: 사람은 누구나 혼자 아냐? ... 고기 잘 먹었다.

91. 씬 밤거리

혼자 걸어가는 역도산, 껌을 씹고 있다. 주머니에서 껌 한 통을 꺼내더니 연달아 까서 입에 쑤셔넣는다. 기어코 한 통을 다 입에 넣은 역도산. 뒤도 보지않고 걸어간다. 어디선가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온다.

92. 씬 대 기무라 전

‘와’ 하는 함성소리가 더욱 커지는데, 링 바닥에 쿵하고 떨어지는 역도산.

쓰러진 상태에서 관객들을 보는 역도산.

자신이 쓰러진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관객들.

관객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고무된 기무라, 원기 왕성하게 다시 덤벼든다.

다시 일어나는 역도산, 덤벼드는 기무라의 손을 마주 잡고 힘겨루기를 한다.

관중석 곳곳에는 야쿠자로 보이는 사내들이 역도산과 기무라를 지켜보고 있다.

닛다도 나카다를 비롯한 여러 부하들과 함께 링 위를 흐뭇하게 보고 있다.

투지에 불타는 역도산의 눈. 기무라, 역도산의 눈빛에 약간 당황한다.

역도산, 힘으로 기무라의 팔을 꺾어 압도하기 시작한다.

힘에서 밀린 기무라, 뒤로 넘어지는데, 그의 발이 역도산의 국부를 스친다.

뒤르 펼쩍 뛰는 역도산. 급소를 맞지도 않았는데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한다.

기무라: (당황하여) 역도산!

역도산: (살기를 띄고) 기무라! 치사한 짓 하지마!

역도산, 번개처럼 달려들어 코뿔소처럼 기무라의 목을 향해 가라데 찰을 날린다.

방심하고 있던 기무라의 목에 가라데 찰이 꽂히자, 숨이 턱 막히는 기무라.

역도산, 강력한 가라데 찰을 계속해서 날린다.

주저앉은 기무라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링 코너바에 짓이긴다.

퍽! 퍽! 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로키 상태의 기무라, 피를 흘리며 역도산을 본다.

로프에 걸친 채 기절하는 기무라, 하지만 역도산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열광하던 관중들의 소리가 너무 잔혹한 상황에 질려 조용해진다.

묵음.

심판이 간신히 역도산을 붙잡아 끌어내자,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링 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기무라.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링 바닥에 엎어져있다.

심판이 카운터를 세는 가운데, 역도산 링 사이드로 가서 서 있다.

혈떡거리는 역도산의 숨소리만 화면에 가득 찼다가 점점 사라지는데,

크게 들썩거리는 역도산의 어깨.

비참한 유행곡을 목격하고 말을 잃은 관객들.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역도산을 노려보는 닛다 회장.

심판의 카운터.

의식을 잃은 기무라의 얼굴.

다시 역도산의 얼굴.

‘땡!땡!땡!’ 하는 시합 종료 소리가 묵음을 깨자,

심판이 시합 종료를 선언하자, 양 팔을 번쩍 들고 관객들을 향해 돌아서는 역도산.

하지만, 관객석은 조용하기만 하다. 호응없는 역도산의 환호가 계속 이어진다.

93.썬 역도산의 라커룸

얼음물에 얼굴을 담그는 역도산. 잠시 그대로 있다가 고개를 든다.

옆에 있던 요시마치가 수건을 건넨다.

역도산, 얼굴을 닦은 후, 붓기를 빼기 위해 이번에는 손을 얼음물에 담근다.

주변에 있던 레슬러들이 슬금슬금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간다.

격렬한 시합이 막 끝났지만, 그는 매우 침착하다. 반면, 요시마치는 밖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의 응성거림이 신경쓰이는지, 자꾸만 문 쪽을 돌아본다.

요시마치: 선생님. 기자들이 가만있지 않을텐데요.

역도산: (서류 한 장을 보며 불쑥) 이게 오늘 내 수입이야?

요시마치: 예? 그렇습니다만.

역도산: (박박 찢고) 요시마치. 회사는 어떻게 만들지?

요시마치: 예? 회사요? 그보다.

역도산: 알았다. 알았어. 나가지.

뚜벅뚜벅 걸어가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한 후, 벌컥 문을 열고 나간다.

94. 씬 라커룸 앞

핑! 핑! 터지는 카메라 후레쉬. 잔뜩 물려온 기자들 앞에 서는 역도산.

서로 질문을 먼저 하기 위해 달려드는 기자들. 역도산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다.

역도산: 오늘 시합은 정상적인 프로레슬링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기자들 앞에 내미는 역도산.

역도산: 이걸 기무라가 서명한 무승부 서약서입니다. 기무라는 정말 비겁한 짓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무승부로 치르자고 뒤를 봐주는 야쿠자를 동원해 날 협박했었습니다. 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처음엔 대답도 안 했는데, 너무나 간곡히 부탁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은 무승부로 하고, 마지막 시합에서 결판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합을 시작하자마자, 기무라는 내 급소를 차서 날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무승부 제의는 날 깔아뭉개려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95. 씬 병원 (낮)

시바를 비롯한 기자들이 복도를 걸어간다. 병원 곳곳에 야쿠자들이 성난 눈초리를 번뜩이며 서 있다. 기무라의 병실 앞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이 기자들의 몸수색을 한다. 병실 안 쪽에서 큰 소리들이 난다.

소리(사내1): 허락해주십시오. 역도산의 그 잘난 손목을 잘라오겠습니다!

소리(사내2): 역도산을 죽이는데 자원한 녀석들이 백 명은 됩니다.

수색하는 경호원 양복 안 쪽에 칼이 언뜻 보인다.

경호원: (병실에 대고) 기자들입니다.

안쪽의 신호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는 경호원.
잔뜩 긴장한 채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기자들.

<병실>

목에 기브스를 하고 누워있는 기무라. 옆에는 아름다우나 병약해 보이는 부인이 앉아있고, 혐악하게 생긴 야쿠자들이 호위하듯 서 있다.

기무라: (야쿠자들에게) 잠깐 나가 있어.

밖으로 나가는 야쿠자들. 기무라와 남았지만, 쉽게 말을 못 꺼내는 기자들.

기자: 기무라상! 역도산이 말하는 서약서는 도대체 뭘니까?

기무라: 덮어줘야 할 일을 폭로하다니. 역도산, 이 더러운 자식. ... 이렇게 된 이상 나도 할 말을 하겠어. 역도산과 무승부 담합을 하자고 내게 제안한 것은 일본 프로 레슬링 협회회장 닛다 신사쿠와 마이니치 신문 사업부장이었어. 난 역도산이 무승부를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역도산이 받아들였다구. 난 역도산의 급소를 찬 기억이 없어. 내가 아니라고 항변 하려하는데 역도산이 나에게 가라데 춤을 날렸어. 어젯밤 시합은 스포츠가 아냐. 프로 레슬링도 스포츠가 아니야. 전부 짜고 하는 쇼고, 사기란 말이야!

96. 씬 우동집

도요노보리, 김일을 비롯한 프로레슬러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식당 한 칸의 TV에서 영화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주인공이 오키 하마코다.

영화 속의 하마코는 어떤 남자를 포옹하고 있다.

재미있는지 빙긋빙긋 웃으며 TV를 보는 도요노보리.

이 때, 뒷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어온다.

사내들은 어깨에, 손에 유도복을 하나씩 들었다. 유도 지망생들이었다.

레슬러들과 유도인들 사이에 잠시 긴장감이 흐르는데, 유도인들이 한쪽 구석에 가서 앉는다. 유도인들끼리 무언가 중얼거리며 레슬러들을 보고 웃는다.

유도인: (주인에게) 어이! 텔레비, 다른 데로 틀지.

주인: 예. 예. 죄송합니다. 손님. (TV를 튼다)
도요노보리: 주인! 그냥 놔두지.
주인: 예? (당황) 아, 손님. 보고계셨습니까? (다시 튼다)
유도인: 내 말 안들려? 다른 데로 틀지.

도요노보리, 유도인들을 한 번 째려보고, 다시 주인에게 말한다.

도요노보리: 그냥 뒤.
주인: 손님들. 이러시지 말고.
유도인: 역도산과 붙어먹은 년을 어떻게 참고 보나! 빨리 틀어!
도요노보리: (김일을 보고) 긴타로. 박치기 좀 늘었냐?
김일: 저 새끼들한테 박치기도 필요없습니다!
도요노보리: 연습 시간에 늦으면 선생님이 화내실텐데. ... 할 수 없지.

도요노보리, 의자를 집어 유도인들에게 던진다. 금세 난장을 치는 양 패거리.

97.씬 거리

공간을 확보하여 싸우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레슬러들과 유도인들.
일곱 명 정도의 레슬러들이 열 다섯 명의 유도인들과 싸운다.

98.씬 닷다의 집, 밤

가운데에 닷다가 앉아있고, 나카다 사장을 위시한 참모 다섯 명이 그 앞에 앉아있다.

나카다: 규수 애들이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있는 거 같습니다.
참모1: 어쨌든 약속을 깬 건 역도산 쪽이니까요.
참모2: 거리에선 벌써 십여차례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참모3: 기무라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참모1: 역도산은 믿을 수가 없어. 지금도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 지 모릅니다.
나카다: 회장님. 이번 기회에 역도산을 제거하는 건 어떻습니까?

말없이 말린 다시마를 차와 함께 먹는 닷다.
이때, 복도에선 한 남자가 손을 뒤로 묶인 채 사내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
문이 열리면 닷다가 있는 방이다. 사내의 모습을 보고 조용해지는 참모들.

닷다: 야마모토. 차 한잔 하지.

야마모토라고 불린 사내, 고개를 들자 피루성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넛다: 손이 불편한가? (차 주전자를 들고 일어난다)

야마모토에게 다가가 뜨거운 차를 머리에 천천히 부어준다. 비명을 참는 사내.
부하들 사이에 끼어있던 요시마치가 겁에 질린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

넛다: 간부라는 자가 적이 쳐들어왔는데, 가족을 도피시키고 위치를 이탈해?

야마모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넛다: (차가 떨어지자) 니가 맡은 구역에 뼈를 묻어라. 그렇다면 가족만은 살려
주겠다.

야마모토: ... 감사합니다.

넛다가 돌아서자, 부하들은 야마모토를 다시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간다.
자리에 돌아와 앉는 넛다. 참모들은 잔뜩 위축되어 있다.

넛다: (다시마를 씹다가) 야즈마후지가 레슬링을 하고 싶어한다며?

99.썬 건설 현장, 밤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아직 공사 중인 아파트. 야마모토가 담배를 피우며 한 쪽
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는 혼자다. 5층 정도 되는 높이에서 정경을 바라본다. 맛있게 피
운 담배를 던지더니, 넥타이를 바로 멘 후, 주저없이 밀으로 뛰어내린다. 시멘트 반죽이
가득 담겨있는 풀 안으로 떨어지는 야마모토. 반죽은 늪처럼 그를 빨아들인다.

100.썬 거리, 도로

<역도산의 달리는 차 안>

요시마치가 운전하고 역도산은 뒷좌석에 앉아있다.

요시마치: 예. (속도를 높이며) ... 저, 사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역도산: 뭔데?

요시마치: 독립 말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역도산: 왜?

요시마치: 넛다 회장님이 받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장님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역도산: 이상하네. 요시마치, 니가 항상 떠들었잖아. 부자가 되려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라고. 난 수입이 너무 적어.

요시마치: 그건. (차에 뭔가 이상을 느낀다) 그게 말입니다. (여러가지들 작동해보더니, 브레이크를 몇 번씩 밟아본다)젠장! 이런 개새끼!

역도산: 뭐? 이 자식이 미쳤나?

요시마치: 사장님. 브레이크가 안듣습니다.

차는 점점 속도를 받는데, 멈출 수 없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자동차, 행인들과 다른 차량을 간신히 피해간다.

요시마치: 야쿠자 새끼들! (당황한 채로) 사장님. 어찌죠? 멈추질 않습니다.

역도산: 요시마치!

요시마치: 옛!

역도산: 내 말대로 하면 무조건 산다. 알았어?

요시마치: 옛!

역도산: 여기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쳐. 어디 사람없는 데 없냐?

요시마치: (돌아보며) 사람 없는데요?

역도산: 앞을 봐. 이 자식아!

계속해서 곡예하듯 운전하는 요시마치. 밖을 살피던 역도산, 떠오르는 곳이 있다.

역도산: 요시마치!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하고) 다음은 좌회전.

요시마치, 역도산의 말에 따라 행인들과 차량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운전한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마다 '저겁니까?'하고 물어보지만,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역도산: 저기다! 저기다 봐!

아직 완공안된 건물의 공사 현장. 바리케이트 바를 부수고 달려가는 자동차.

건물에 들이박는다. 광!

잠시 후, 뒷좌석 문이 평하고 날아간다. 역도산이 발로 찬 것이다. 머리가 헝클어진 역도산, 밖으로 나와 성큼성큼 걸어 앞좌석 문마저 부수더니,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요시마치를 꺼낸다. 축 늘어진 요시마치, 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건물 쪽을 본다. 공사 중인 건물에 붙어있는 꽃말.

<시공회사 : 닛다 건설>

낄낄대는 요시마치. 역도산도 요시마치와 함께 웃는다.

101.썬 역도산의 집 (밤)

<거실>

번개가 번쩍하더니, 천등이 친다. 정원에 쏟아지는 폭우가 창문을 연신 두들긴다.
마당에서는 개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총 진열장을 열쇠로 따는 누군가의 손. 엽총과 실탄을 꺼낸다.
역도산, 꺼낸 총을 제자들에게 나눠준다. 도요노보리, 김일 등이 보인다.
한편, 아야는 소파에 앉아 그런 역도산을 멍한 눈빛으로 바라보다, 술잔을 비운다.

<마당>

총을 든 레슬러들이 요소요소에 흠어져 있다. 대문 앞에 듚직하게 서있는 김일.

<2층>

창 밖을 사주경계하는 도요노보리.
역도산도 총을 철컥 장전하곤, 창문 옆에 가 선다. 좀처럼 찾아들지 않는 개소리.

역도산: 도요노보리. 보이는 건 다 썩버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도요노보리: 예. 걱정마십시오.

벽에 머리를 기대며 피곤한 눈을 잠시 감는 역도산,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는데,
이 때, 탕! 하고 총소리가 울린다. 바닥에 떨어지는 알약들.

도요노보리: 아래 총인 거 같습니다.

역도산: 아야!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재빠른 동작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

<거실>

계단을 앞에 두고 잔뜩 긴장한 채 숨어있는 두 사람.

역도산, 허공에 대고 총을 쏜다. 탕! 탕!

역도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고향친다) 개새끼들아! 전쟁하고 싶나? 역도산
을 죽이고 싶나? 난 총이 있다! 총알도 백 명은 죽일만큼 있다. ... 지
금부터 보이는 건 다 죽이겠다. 총알이 떨어지면 때려 죽이겠다. 내
집에 온 걸 후회하게 해주마! 지금 나간다. (도요노보리에게 눈짓한다)

총을 겨눈 채 앞으로 나서는 도요노보리. 역도산도 뒤를 따른다.

도요노보리가 사각지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간다.

창 밖으로 김일이 다가오는 것이 보인다. 역도산, 김일에게 지시해 위치를 잡아준다.

민첩하게 움직이는 역도산과 도요노보리. 창 밖의 김일.

총을 겨눈 채, 사각지대로 뛰어든 역도산, 깜짝 놀라 멈춰선다.

아아가 한 손에 엽총을 들고 서 있다. 술에 취한 듯 약간 비틀거린다.
역도산을 보더니, 웃기 시작한다. 웃음소리가 점점 커진다.
역도산, 달려가 아아의 손에서 총을 뺏는다. 웃음을 멈추지 않는 아아를 때릴려고 손을 들었다가, 차마 때리지 못하고 돌아선다.

102. 씬 기자 회견장 (낮)

아즈마후지를 가운데에 두고, 양 옆에 닛다와 역도산이 서 있다.
뒤의 플렉카드에는 <아즈마후지 프로레슬링 데뷔>라고 적혀있다.

닛다: 역도산은 스모시절에 아즈마후지를 좋아했었지?
역도산: 예. 선배가 항상 찌개며 우동 같은 걸 사줬었죠.
닛다: 이런 타산적인 바보자식.

기자들과 아즈마후지가 재미있다고 웃는다.
그러나 역도산은 자신이 놀림을 당하는 것 같아 억지 웃음을 지을 뿐이다.

닛다: 아즈마후지는 도쿄 토박이에다가 요코즈나까지 지낸 거물이니, 역도산 인기도 위험한 거 아닌가?
아즈마후지: 역도산군! 잘 부탁해.
역도산: (심사가 뒤틀려 있다) 제가 도울 게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레슬링은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닛다: 하하! 천하의 역도산이 긴장을 다하고. 역시 아즈마후지구만.
역도산: 요코즈나건 오오제키건, 배가 튀어나온 녀석은 프로레슬링에서 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역도산의 말에 좌중이 어색해진다. 아즈마후지, 사람 좋은 웃음으로 무마하려 한다. 싸늘하게 역도산을 노려보던 닛다, 얼굴 표정을 풀며,

닛다: (웃으며) 큰일이구만. 아즈마후지! 레슬링 선배인 역도산이 군기를 잡는 거야. 각오를 해야겠는데. ... 역도산의 훈련은 무척 힘들어.
아즈마후지: (웃으며) 선배님. 너무 무섭게는 하지맙시다.

모두가 웃음을 터트리자, 역도산도 애써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이 때 시바기차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

시바: 향간에 레슬링은 모두 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승패를 미리 정해놓고, 자기가 맡은 역을 연기하는 거라구요. 그 무시무시하다는 역도산 선생의

가라데 춤도 사실은 별로 타격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넛다: 그건 오해입니다.

연단에서 빠져나와 시바 기자 쪽으로 걸어가는 역도산.

역도산: 잠깐 이리 나와 보십시오.

예측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약간 망설이던 시바, 빈 공간으로 나온다.

역도산, 순식간에 시바에게 달려들어 4자 굳히기를 한다.

비명을 지르는 시바 기자. 거품을 물고 기절한다. 경악하는 기자들.

역도산, 시바를 도요노보리에게 넘겨준다.

역도산: 병원으로 데려가! (기자들에게 돌아서) 모든 스포츠에는 룰이 있어. 만약 허리 꺾기를 시도하는데 15도 이상을 꺾어 버리면 허리뼈가 부러져. 우린 살인자들이 아니라고. 권투선수들이 글러브를 끼고 시합을 하듯이 우린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룰을 가지고 시합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구든 나의 레슬링을 가짜라고 하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어.

103.썸 체육관 (밤)

조용하고 어두운 실내. 링 위에 넛다 회장이 서 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다, 한 쪽 사이드르 간다. 반대쪽에서 역도산이 올라온다. 마주보는 두 사람.

넛다: (링을 보며) 생각했던 것보단 좁군.

역도산: 예. 여기선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넛다: 역도산! 노래 하나 불러봐라.

역도산: 예? 무슨 노래 말입니까?

넛다: 향군가는 어떨까?

역도산: ...

넛다: 나도 다리 위를 달린 적이 있다. 너처럼 어렸을 때, 너처럼 경찰을 뒤에 달고, 너처럼 살기 위해서 말이다. ... 상대에게 기습을 당해 심한 부상을 입은 오야봉을 업고 뛰었다. 사실 무리였지. 하지만 난 성공했다. 널 볼 때마다 난 그 때의 내가 떠올라서 좋았다.

역도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넛다: 그런데 역도산, 넌 너무 적을 많이 만들었어. 사방에서 널 노리고 있다. 이제 그만 이 링 위에서 내려가는 게 어떨까? 선수로서의 역도산을 마감하고, 프로모터가 되라. 아즈마후지라면 널 이어 프로레슬링의 인기를 유

지시할 수 있을거야.
역도산: 링을 떠나라는 말씀이십니까?
넛다: 더 큰 링에 오르라는 말이다.
역도산: ... 회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본 프로레슬링 전체를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을 찾겠습니다.

104. 씬 바닷가 훈련장

모래 사장을 달리는 레슬러들. 역도산이 맨 앞에서 달린다. 한 순간도 쉬지않는 파도와
성실함을 대결하듯이 역도산, 제자들을 다그친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레슬러들을 보는
요시마치. 신문을 들고 걸어오는데, 약간 난처한 표정이다. 역도산, 요시마치를 발견하
고 다가온다.

요시마치: 사장님. 좀 쉬어가며 하십시오.
역도산: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찾아오고.
요시마치: 사장님. 아니, 역도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역도산: 뭐야? 실없이.

요시마치, 신문을 내민다. 인물동정 코너에 실린 기사.
<일본적십자사, 역도산에게 훈장 수여키로>

역도산, 신문을 뚫어져라 보더니 입가에 함박웃음이 터진다.

요시마치: 정말 축하드립니다.
역도산: (신문을 돌려주려다) 가만. 이렇게 조그맣게 한 번 나고 만거야? 어디
다른 덴 안났어? (신문을 찢어 뒤적거린다)

갑자기 어떤 기사가 역도산의 동작을 멈추게 한다. 험악한 표정을 짓는 역도산.
신문을 던져버리고 해변으로 걸어간다. 요시마치가 떨어진 신문을 주우면,
<오키 하마코, 재미교포 사업가와 약혼> 이란 기사 밑으로 붙은 하마코의 사진 한 장.
햐섬한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하마코.

105. 씬 해변가 식당

멀리 수평선으로 해가 저문다. 역도산을 비롯한 레슬러들은 왕성한 식욕으로 그릇을 비
워나간다. 적십자사 훈장수여 소식으로 기분이 좋은 역도산, 자주 웃으며 쾌활하다. 제
자들, 서로 눈치를 보며 뭔가 기대하는 눈치다. 도요노보리가 동료들의 말없는 채근을

받고, 말문을 연다.

도요노보리: (조심스레)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훈장 받으시게 돼서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역도산: 고맙다. 모두 애써준 덕분이다.

도요노보리: 저, 선생님.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인데요, 파이트머니를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역도산: 돈을 더 달라고?

도요노보리: 예.

역도산: 모두의 의견이냐?

제자들: 예.

역도산: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다 집합해!

106. 씬 해변가

어깨등무를 한 채 반쯤 바다에 잠겨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레슬러들.

역도산: 지금부터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면 파이트머니를 두 배로 올려주겠다. 반대로 한 놈도 못맞추면 절반으로 깎겠다.

레슬러 한 명을 보고 느닷없이 묻는다.

역도산: 너한테 레슬링이란 뭐냐?

레슬러1: 예? 그야 ... 존경하는 역도산 선생님을 모시고,

역도산의 구령 소리와 함께 일제히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레슬러들.

역도산: (다음 제자에게) 너 왜 레슬링을 하나?

레슬러2: 천황 다음엔 역도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구령.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레슬러들. 다음 선수.

역도산: 너한테 레슬링이란 뭐냐?

레슬러3: 최고의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령. 잠겼다가 일어나고, 도요노보리의 차례가 된다.

역도산: 도요노보리. 너한테 레슬링이란 뭐냐?

도요노보리: ... 도박입니다.

역도산: ... 정말, 바보한텐 당할 수가 없군. 저기 보이는 등대까지 선착순. 파이.
트머니는 일등만 올려주겠다. 실시.

어깨등무를 풀고 일제히 달려가는 레슬러들. 혼자 남은 역도산은 수평선을 본다.

107.썸 경기장, 시합 전날 밤.

텅 빈 객석과 링 사이를 스태프들이 다니며 세팅하고 있다. 아즈마후지의 데뷔전을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이 한 쪽에 걸리고 있다. 스태프들을 지휘하던 요시마치에게 나카다 사장이 다가간다. 깡뚫하게 인사하는 요시마치.

<한 쪽 통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구석의 통로로 온 요시마치와 나카다 사장.

나카다 사장,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약봉지다.

나카다: 수면제야. 시합 전에 몰래 역도산에게 먹이라구.

요시마치: ... 꼭 이래야 됩니까?

나카다: 역도산을 어떻게 믿냐? 우리도 보험은 들어야지. 그 바보가 자넨 믿잖아?

사라지는 나카다, 약봉지를 들고 있는 요시마치. 그의 등 뒤로 역도산의 대형사진은 내려가고, 대신 아즈마후지의 사진이 올라가고 있다.

108.썸 경기장 꽃다발 증정식, 낮.

아즈마후지의 대형 사진이 천장에 걸려있다. 링 밖으로 길게 줄 선 사람들.

거구의 아즈마후지가 링 위에 올라 손을 번쩍 들자,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진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꽃다발 증정식.

109.썸 역도산의 라커룸

일렬로 서있는 레슬러들, 역도산에게 줄줄이 얻어터진다. 대단히 흥분한 역도산, 길길이 뛰며 레슬러들을 갈군다. 요시마치가 주변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역도산을 본다. 요시마치는 약봉지가 들어있는 서랍을 아무도 모르게 닫는다.

역도산: 니들이 이렇게 허술하니까, 내가 알보이는 거 아냐? 시합 시간에 20분
씩 늦는 놈들이 어딴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어?

도요노보리: 저, 차가...

역도산: 삼중 총들이고 뭐고, 니들 프로아냐? 프로가 뭐야? 총에 맞고 칼에 찔
리더라도 제 시간에 대야지. ...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잔뜩 풀이 죽은 선수들이 바깥으로 나가자, 역도산은 거울 앞으로 가 몸을 푼다.

역도산: 요시마치! 약을 다오.

요시마치: ... 예.

요시마치가 서랍에서 약을 꺼내 물컵을 들고 앞으로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고 사진 기자들이 물려들어온다.

포즈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곤란한 척 하다 웃으며 자세를 잡아주는 역도산.

핑핑 터지는 카메라 플래쉬, 기자들은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과 팽팽한 근육이 있는 앞
모습을 보지만, 요시마치는 새치가 살짝 자란 그의 뒷모습을 본다.

요시마치, 잠시 역도산을 바라보다 결심하고 약을 꿀꺽 자신이 먹어버린다.

잠시 후, 역도산의 부탁에 따라 바깥으로 나가는 기자들.

역도산: 자식들. 아무 때나 들어와. 요시마치. 약!

요시마치: ... 없습니다.

땀한 얼굴로 요시마치를 보던 역도산, 퍽! 하고 한 대 때린다. 나가떨어지는 요시마치.

역도산: 시합 전에 항상 먹잖아? 그러고도 니가 비서냐?

요시마치: 기자들이 보면 괜히 의심할 거 같아서 없었습니다.

역도산: 니 사포나 써 뉘! 이 자식아!

가운을 걸치고 바깥으로 걸어나가는 역도산. 그런 역도산을 보는 요시마치.

110.썸 시합

육중한 뱃살을 출렁이며 링 안으로 들어가는 아즈마후지.

역도산이 예의를 지켜 로프를 벌려 주자,

아즈마후지, 역도산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여 준다.

역도산: 요코즈나! 당신이 이기도록 되어있으니까. 맘놓고 실력 발휘하면 됩니
다.

웃으며 링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아즈마후지.
'땡'하고 종이 울리고, 복면레슬러 미스터 아토믹이 달려나온다.
나오자마자 아즈마후지의 목을 왼쪽 팔로 껴안고, 오른 주먹으로 강타한다.
아즈마후지, 빠져 나오려 발버둥치지만 목은 더욱 조여들고, 아토믹의 주먹에 이마가
피르 물들기 시작한다. 아즈마후지, 커다란 땀방울로 보기 싫게 허우적거리기만 할 뿐
너무나 무기력하다. 안타까워하는 관중들.

천장에 걸려있는 요코즈나 때의 아즈마후지 사진이 피투성이가 된 그를 내려보고 있다.
아즈마후지, 기합을 넣고 겨우 빠져나와, 아토믹에게 허리꺾기를 시도하는데,
아토믹은 고통스러워 하지도 않고, 아즈마후지의 귀를 잡아 당겨 빠져 나온다.
눈에 자꾸만 스며드는 피를 닦아내며 다시 싸우려드는 아즈마후지,
하지만, 아토믹은 재빨리 그의 뒤로 달려들어 허리꺾기로 들어간다.
고통에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치는 아즈마후지.
애가 탄 관중들, 역도산을 부르짖는다.

'역도산! 요코즈나를 구해 줘!'

역도산, 교대를 하려고 팔을 내밀지만 닿지 않는다.
아즈마후지는 이제 덩치에 안 맞는 비명까지 지르고 있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다.
역도산, 참다못해 반칙이지만 링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다 심판에게 제지를 당한
다. 더욱 커지는 아즈마후지의 비명.
역도산,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링 위로 뛰어 들더니, 그를 제지하는 심판을 토투 킥
을 차서 링 밖으로 날려 버리고, 덤벼드는 미스터 아토믹의 파트너도 가라데 춤으로 날
려버린다. 뒤늦게 자세를 잡는 아토믹까지 발차기로 날려보낸다.
벌벌 기어서 링 밖으로 빠져나가는 아즈마후지.
그의 눈이 닳다를 향하면, 아연한 표정의 닳다가 보인다.
매우 흥분해서 목을 내뻗는 사카다 사장과는 달리, 닳다는 침착하다.
그는 지금 오랜 인연 하나가 끝나고 있음을 느낀 것 같다.
역도산, 아토믹에게 드디어 가라데 춤을 날린다.

역도산! 이 자식! 요코즈나를 필로 보는거야!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역도산.
결국 아토믹이 쓰러지자, 달려들어 사자 굳히기를 한다.
모두 일어나 환호성치는 관중들, 그 사이에 요시마치가 보인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축 늘어져 잠에 골아 떨어져있다.

카메라 직 부감으로 떠올라 한 일자로 링 위에 다리가 꼬아져 누워 있는 두 사나이를
보여준다. 피가 흥건한 링 바닥. 아토믹, 크게 비명을 지르는데, 화면이 어두워진다.

111. 씬 닛다의 집 (밤)

<정원>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불이 모두 켜져있다. 두 명의 사내가 대문을 열자,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어온다.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들은 모두 팽팽하게 긴장한 상태에서 안채를 향해 빠르게 걸어간다.

<방>

사카다 사장을 비롯한 닛다의 참모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의견을 토로한다. 상석에 앉은 닛다는 가만히 다시마를 씹고 있는데.

<대문 앞>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온다. 대문을 지키고 있던 사내가 상대를 보더니, 칼을 빼든다. 어둠 속에 번쩍 빛나는 칼날. 주변에 있던 사내의 동료들이 속속 모여든다. 검은 그림자가 불빛 아래로 나온다. 역도산이다.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다.

역도산: 회장님께 다시마를 가져왔다.

<정원의 길 - 복도 - 방>

곳곳에 서 있는 야쿠자들이 험악한 눈빛으로 노려보는 가운데, 역도산이 걸어간다.

<방>

닛다와 마주 앉는 역도산.

닛다: 오늘은 다시마가 쓰군. (씹던 다시마를 뱉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역도산: 전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닛다: 역도산. 넌 일본 프로레슬링 전체를 생각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역도산: 회장님. 일본 프로레슬링 전체를 위해선 아즈마후지가 져야 한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 아직은 역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링 위에서 더 싸우고, 더 피흘리고, 더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다.

닛다, 천천히 일어나더니 옆에 서있는 부하의 칼을 뽑는다.

칼집에서 칼을 빼는 닛다, 역도산에게 걸어간다.

동요하는 역도산, 악착같이 참으며 그대로 앉아있다.

역도산 앞에 멈춰서는 닛다, 잠시 역도산을 보다 칼을 높이 쳐든다.

주먹을 꽉 쥐는 역도산. 눈은 감지 않고 닛다를 노려본다.

칼을 내리치는 닛다, 역도산이 가져온 다시마 상자가 찢어진다.
칼은 역도산의 목이 아니라, 선물에 떨어진 것이다.

닛다: 역도산. 니 뜻은 잘 알았다. 나 닛다 신사쿠는 오늘로 너와의 인연을 끊
겠다. 이 일로 사사로운 보복은 없을 것이다. (돌아서 자리로 돌아간다.)

역도산: 회장님!

닛다: 그만! ... 역도산, 다신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112.씬 거리

캐를송이 울러퍼지고, 자선냄비를 펼쳐놓은 구세군이 한 켠에 서 있다.
겨울옷을 입은 행인들이 길을 간다.

113.씬 적십자사 강당 (낮)

니혼 텔레비전의 카메라에 잡힌 역도산의 모습. 무척이나 긴장한 모습이다.
단상 위의 역도산.

적십자사 회장: 역도산씨는 프로 레슬링 흥행 매상 중 일부를 지난 5년간 매달
기부해 오신 숨은 공로자이십니다. 그 높은 뜻을 기려 일본 적
십자회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역도산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는 회장.

역도산, 상장을 받고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한다.

114.씬 호텔 화장실

용변을 보고 있는 역도산, 이때, 문이 열리더니 사내 한 명이 역도산에게 곧바로 다가
온다. 역도산이 슬쩍 보면, 사내는 야구방망이를 검처럼 뒤에 메고 있다.
까까머리의 하리모토 아사오(장훈)이다.

장훈: (한국말로) 전 야구선수 장훈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동 장 씨고, 어머
니는 경주 이 씨입니다.

역도산: (일본말로) 그래서?

장훈: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뿌리를 속이고 살면 안된다고 어머님께
배웠습니다. 역도산 선배님. 당신은 조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조선 국

적을 밝히지 않습니까?

역도산: 지금 그걸 몰으러 여기까지 따라온거냐?

장훈: 예. 대답해 주십시오.

다짜고짜 장훈의 뺨을 때리는 역도산, 분이 안 풀리는지 연타로 몇대 더 때린다.

맞으면서도 역도산을 똑바로 노려보는 청년 장훈.

주먹을 내리고, 밖으로 나가는 역도산, 그런데 등 뒤에서,

장훈: 역도산 선배님! 대답해 주십시오!

역도산: (돌아서 장훈을 본다) 넌 모른다. 넌 아무 것도 모른다.

장훈을 남겨놓고 문을 닫는 역도산.

115. 씬 역도산의 집 거실 (저녁)

레슬러들이 텔레비전을 거실로 옮겨 설치를 하고 있다.

종양의 쇼파에 역도산이 앉아있고, 그 주위에 요시마치와 역도산 회사의 직원들,

그리고 프로 레슬러들과 게이샤들이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든다.

드디어 텔레비전이 켜지고, 안테나를 이리저리 움직여 화면이 제대로 나오게 한다.

시계바늘이 일곱 시를 가리키며 뉴스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역도산도 즐거운 표정으로 술을 들이키고, 옆자리에 앉은 니혼 텔레비전 프로듀서에게 술을 권한다. 건배를 하고 마시는 두 사람.

PD: 역도산 선생님을 위해!

역도산: 고맙소. 일본 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드디어 뉴스에 적십자화 강당의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 만세를 부르고 떠들썩해진다.

그러나, 적십자사 총재의 얼굴만 나오며, 역도산이 적십자사 훈장을 받았다는 멘트가 짧게 나오더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버린다. 훈장 수여장면이 짤려 버린 것이다.

거실에는 싸늘한 공기가 들고, 역도산, 쥐고 있던 술잔을 으드득 씹는다.

역도산으로부터 자주 당한 프로레슬러들이 먼저 슬금슬금 도망친다.

게이샤들도 일어나 한 쪽 구석으로 가는데, 모두의 시선이 역도산을 향해 있다.

옆에 있던 프로듀서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역도산 그의 목살을 잡고,

역도산: 제일 중요한 게 잘려버렸잖아. 이 개자식아!

역도산의 주먹이 프로듀서의 얼굴을 강타하고 프로듀서는 뒤로 날아가 버린다.

역도산,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텔레비전을 들어 거실 유리창에 던져버린다.

탁자까지 엮어버리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한다.
발광하는 그의 양복 옷깃에 메달린 훈장이 대롱거리고, 사람들은 어느새 모두 다 거실을 빠져나갔다. 혈떡거리는 역도산, 컵에 술을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키고는, 컵을 으드득 씹어서 천정에 던져 버린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집안 거실의 물건들을 하나씩 자근 자근 부셔 버리는 역도산.
바닥에 깔린 카페트를 들어 올려 입으로 물어 쪽 찢어버리는데,
가방을 든 아야가 방에서 소리 없이 나온다.

역도산: (물고 있던 카페트를 뱉어버리고) 뭐야?

아야: 난 떠나겠어요.

아야, 성큼성큼 발을 옮겨 아무 미련이 없다는 듯 거실을 빠져나간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역도산, 아야를 향해 달려가 가로막고 선다.

역도산: 아야! 왜 이래? 지금 나가면 다신 못들어와?

아야는 입을 굳게 다물고 역도산을 무시하고 나가려한다.

역도산: 부탁이야. 아야. 제발 가지마.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데로 다 해줄게. 제발 가지마.

아야: (말없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결국 그것도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역도산을 밀치더니 문을 열고 나가는 아야. 멀어져간다.

텅 빈 집안에 역도산 혼자만 남아있다.

이 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요시마치다.

요시마치: 사장님. 한 시간 전에, 닛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16.썬 닛다의 장례식 (낮)

수백 개의 조화들이 일렬로 늘어서 차도와 거리를 막고 있고, 검은 양복의 조문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역도산, 총혈된 눈으로 조문 행렬에 끼어있다. 영정 앞에 절하는 역도산. 나카다 사장을 비롯한 닛다의 참모들은 못마땅한 눈으로 역도산을 본다.

117.썬 호텔 (밤)

창 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다. 지난 날, 오키 하마코와 하룻밤을 보냈던 그 호

텔이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과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 텔레비전에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혼자다.

118. 씬 병원

병색이 완연한 여인이 침대 위에서 차고 있다. 그 옆에 앉은 기무라, 여인의 손을 잡고 있다. 뒷 쪽으로 야쿠자 한 명이 다가온다.

야쿠자: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기무라: 음.

야쿠자: 역도산도 오늘로 끝입니다. 닛다 회장도 죽었으니 뒤도 없습니다.

기무라: (아내의 얼굴을 보며) 알았다. (아내의 손을 놓고 일어서려는데)

아내가 눈을 뜬다. 눈을 감은 채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것이다.

기무라: (야쿠자에게) 먼저 나가 있어라.

야쿠자: 예. (나간 후 문을 닫는다)

기무라: 좀 더 자지않구?

아내: 여보. 부탁이 있어요.

기무라: 말해요.

아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 이용당하세요. 역도산과 싸우지 마세요.

기무라: 난 그 늑을 용서할 수 없어.

아내: 나,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남은 시간은 당신하고 있고 싶어요. 나만을 위해서 있어줄 순 없나요?

119. 씬 호텔, 최상층 방 (밤)

탕! 탕! 총소리가 난다.

모조리 비어버린 슬병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있는데, TV에서 방송되는 영화 속의 사내들이 서로 총을 쏘고 있다.

마지막 술잔을 비우는 역도산, 여전히 혼자다. TV의 채널을 돌린다.

이 때, 문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기다리는 사람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는 역도산, 일어나 문을 열어본다.

텅 빈 호텔 복도. 전등 하나가 수명을 마치려는지 깜박깜박 하고 있다.

복도의 반대 쪽도 살피는 역도산. 아무도 없자,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려는데,

깜박이던 복도의 전등이 기어코 완전히 꺼지고 만다.

역도산, 문을 닫고 들어서는데, 방 안에 있던 누군가가 뒤에서 역도산의 목을 조른다.

있는 힘을 다해 엮어치기를 하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내가 뛰어나와 칼을 휘두른다.
어느새 방 안에 들어와 있던 사내 서너 명을 상대로 악착같이 싸우는 역도산.
그러나, 결국 한 녀석이 쓴 총에 배를 맞고 만다.
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는 역도산.
사내 중 한 명이 탄창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총을 쏜다.
피범벅이 되어 쓰러진 역도산 앞에 우뚝 서는 사내, 기무라다.
TV에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흘러나온다.
기무라, 역도산의 상처 부위를 발로 밟는다. 피가 울컥 솟는다.

기무라: (역도산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 오이, 킹! 난 웃는 조센징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

<호텔 룸 - 현실>

'안 돼!'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는 역도산.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바닥에서 일어난다.
꿈에서와 똑같은 상태의 방, 술병이 뒹굴고, 캐를송이 TV에서 흘러나오는.

<화장실>

꿈에서 한 녀석이 화장실에 숨어있던 게 기억나는 역도산,
들어가기 전 잠시 경계를 한다.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다.
물을 틀어 세수를 하는 역도산. 세수를 하다 자신의 얼굴을 본다.
파티를 위해 잘 차려입은 양복이 오히려 하마코의 배신을 아프게 각인시킨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다시 세수하는 역도산.
이 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역도산,
자꾸 얼굴을 씻는다. 눈물은 나오자마자 물에 씻겨 사라지지만, 한번 터진 눈물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아야가 떠났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닛다 회장의 영정 앞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훈장수여식이 끝나갈 때도 나오지 않았던, 바로 그 눈물이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한번에 터진 것 같다.

역도산: (웃으려고 애쓴다) 정말, 바보한테 당할 수가 없군. 왜 울고 지랄이야?

특이 터진 눈물을 물로 씻으며, 웃기 위해 애쓰는 역도산. (F.O)

120.씬 클럽 뉴 라틴 쿼터 (밤)

어두운 화면 위로 흥겨운 재즈 음악이 들려온다.

자막: 1963년 12월 8일

클럽 직원들은 물론, 손님들까지도 걸어가는 한 사내를 주목하고 있다. 깜짝 놀라거나,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기도 한다. 낯직한 등판을 가진 이 사내, 역도산이다.

그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가, 웃음을 흘리며 다가오는 호스데스의 가는 허리를 손으로 휘감아 춤을 추더니, 손 안에 감춰둔 코스터를 부메랑 날리듯 무대의 악단들에게 한 장씩 던진다. 하얀 코스터가 조명에 반짝 반사되며 표창처럼 날아가면, 악단들은 장난스럽게 피하며 역도산에게 친근한 웃음과 고개짓을 한다.

역도산, 호스데스를 떼어놓고 화장실을 향해 혼자 걸어간다.

술을 마시던 손님들, 그를 향해 애정어린 건배와 인사를 한다.

그들에게 일일이 답하며 화장실로 들어가는 역도산.

121. 씬 화장실 (밤)

한눈에 야쿠자로 보이는 사내(무라타), 용변을 끝내고 나오려다,
마침 들어오는 역도산과 옷깃이 스친다.

역도산: 이런 바보자식. 구두를 밟았잖아?

무라타: 엇! 역도산. 죄송합니다.

역도산: (달아나려는 사내의 옷소매를 잡고) 이자식. 너 야쿠자지?

달아나려는 무라타를 때리기 시작하는 역도산,
무라타는 옷깃을 잡혀 도망치지도 못하고 역도산의 주먹질에 연신 맞는다.

무라타: 살려줘.

무라타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는데,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뒤져 뭔가를 잡는다.

뭔가가 반짝하고 빛나는가 싶더니, 역도산이 주먹질을 멈춘다.

무라타와 자신의 배를 번갈아 보는 역도산.

역도산의 하얀 와이셔츠에 피가 번져 나온다.

무라타, 겁에 질려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뒷 걸음질 쳐 도망친다.

역도산: 이런. 역도산! 이 바보 자식.

비틀거리는 역도산.

122. 씬 산노병원 (밤)

들것에 실려가는 역도산.

간호사와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는 별 것 아닌 양 누워서 계속 증얼거린다.

역도산: (혼잣말로) 제기랄. 실수야 실수. (의사에게) 의사 양반, 잘 꼬매야 돼.
상처가 크면 배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 그럼 레슬링을 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의사.

이젠 와이셔츠 전체가 시뻘겁게 피로 물들었다.

들것 뒤에는 수행원과 경호원들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간다.

123.썩 병실

침대에 누운 역도산, 잠이 들었는지 눈을 감고 있다.

아무렇게나 자란 수염, 팽한 눈언저리, 눈에 띄게 수척해 보인다.

이때, 노크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린다. 요시마치가 들어온다.

역도산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요시마치,

요시마치: 사장님!

천천히 눈을 뜨는 역도산, 손가락을 까닥 움직여 요시마치를 가까이 부른다.

요시마치: (역도산에게 다가가)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역도산: 바보자식. 역도산은 이 정도론 죽지 않아. (손을 총모양으로 만들어 자기 머리에 쏘는 시늉하며) 이렇게가 아니면 죽지 않는다고...

요시마치: 알고 있습니다.

역도산: (요시마치를 위아래로 흘겨 보더니) 그 코트 좀 벗어봐.

요시마치: 예?

124.썩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안

운전하는 요시마치, 뒷좌석에는 환자복 위에 요시마치의 코트를 걸친 역도산.

그는 멍하니 창 밖을 본다. 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올림픽 개최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지천이다. 거의 모든 대형건물에 크고작은 오륜마크가 그려져 있다.

125.썩 거리 - 역도산의 옛날 집

천천히 달려와 정차하는 자동차. 역도산, 차에서 내린다.

역도산: 기다려.

요시마치: 예.

역도산, 모퉁이에 있는 작은 집으로 걸어간다.

자신이 특하면 부수고 들어갔던, 아야와의 신혼집이다.

현관 앞에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누르는 역도산.

안 쪽에서 인기척이 나고, 누군가 다가온다. “누구세요?”

역도산: 예.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문이 조금 열리고 그 틈으로 50대 아주머니가 보인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역도산: 아, 예. 여기 사십니까?

아주머니: 그런데요.

역도산, 좁은 틈 사이로 옛날 집 안을 보기 위해 애쓴다.

옛날과 달라진 게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아주머니: (환자복을 입은 역도산을 경계하며)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역도산: 저,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거든요?

아주머니: 예?

역도산: 지금은 여기 안 살지만요.

아주머니: 예.

역도산: 옛날엔 여기 살았었는데.

아주머니: ... 저, 제가 지금 바빠서. (문을 닫으려고하자)

역도산: (문닫는 것을 막는다) 잠깐만요. (금방이라도 부수고 들어갈 기세,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빠진다)... 실례했습니다. (문에서 손을 떼다)

문이 광 닫히고, 여자가 사라진다. 잠시 후, 역도산도 돌아선다.

<집 안>

아주머니,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간다. 카메라는 방 한 쪽에 걸려있는 사진을 비춘다.

신혼 부부의 사진, 젊은 날의 역도산과 아야다.

아야가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바로 그 사진이다.

방 바닥에는 병색이 완연한 아야가 링겔을 맞은 채 누워있다.

아야: (힘없이 뺨을 보며) 누구왔어요?

아주머니: 지나가는 사람이예요.
아야: ... 이상하네. 오늘은 자꾸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아주머니: 그보다 뭘 좀 먹어야지.
아야: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네.

126.썬 황량한 벌판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 역도산의 자동차가 서있다.
노을지는 들판 저 멀리, 점이 되어 서있는 역도산과 그의 비서 요시마치.

요시마치: 모두들 올림픽, 올림픽. 사장님. 내년엔 전세계 94개국 5,500 명과 싸
 워야될 판입니다. 편안하게 병원에 누워 계실 때가 아닙니다.
역도산: ... 요시마치! 여기 뭐가 보이지?
요시마치: 그냥 황량한 벌판 아닙니까?
역도산: 바보자식. 넌 눈에 보이는 것만 봐.
요시마치: 그러는 선생님은요?
역도산: 나는 내가 보고 싶은걸 본다... 난 리키 팔레스가 보여.
요시마치: 예?

피식웃는 역도산, 넓은 벌판 한가운데에서 바람을 은 몸으로 받으며 곳곳이 서있다.

역도산: 요시마치. 우리 고향에선 말이다. 사람들이 참 많이 웃었다. 먹을 게
 없어서 갓난아이들이 굶어죽는 일도 있었는데... 형들하고 난 농담을
 섞지 않으면 얘기를 안할 정도였다. 우리 오마니 농담도 대단했지. 근
 데 일본에 왔더니, 웃을 일이 없더라. 아니, 웃어서는 안되겠더라구. 가
 난한 조센징이 웃고 다니니까, 저 새끼 미쳤다고, 지 주제에 뭐가 좋
 아서 웃고 다니냐구 욕하는거야. 그래서, 난 결심했다. 성공하자, 성공
 하면 웃을 수 있다. 아니 웃으려면 성공하자. 일본에서 가장 많이 웃
 는 사람이 되자. 그 때까지 웃지도, 울지도 말자.

요시마치: 사장님.

역도산: 요시마치. 이번에 나가면, 스모 호반 백만 평에 역도산 레저센터를 세
 울거다. 유츠보엔 영국 왕실처럼 요트도 띄우고, 긴자에 일본 최대의
 광고빌딩도 세워야지. 그 정도는 되야, 백년이 지나 내가 죽은 다음에
 도 나 역도산은 마음껏 웃으며 살았다는 걸 사람들이 알 거 아니냐.

역도산, 미소를 짓는다. 많은 여성 팬들을 불러모았던 그 미소다.

하지만, 몸이 약해진 탓인지 오래가지 않는다.

이때, 허공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다. 한없이 맑은 눈빛으로 눈을 보는 역도산.

역도산: ... 요시마치. 넌 왜 날 떠나지 않지? 모두들 떠났는데.

요시마치: 글썽. 왜 안 떠날까요. ...아마 레슬링을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역도산: (괴식 웃고) 요시마치. 세계 최고의 레슬러와 한판 할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

요시마치: 왜 그러세요, 갑자기 레슬링이 싫어질려고 그러합니다.

역도산이 그런 요시마치를 잡아 다리 사이에 낀다.

요시마치, 숨막혀 킁킁 대다가 역도산의 다리를 물고,

역도산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도망을 간다.

역도산: 너, 이 자식 몰았어?

코트가 바람에 벗겨져 한자복을 입은 채 쫓아가는 역도산과 도망가는 요시마치.

철부지 애들의 장난같은 그들의 모습 위로 눈발이 날린다.

점점 거세지는 눈발에 역도산과 요시마치의 모습이 묻혀간다. (DIS)

127.썸 장사의 꿈, 낮

거세게 내리던 눈발이 어느 순간에 흩날리는 빗꽃으로 바뀌면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리(아야): 장사. 어서요. ... 빨리요.

어디론가 뛰다시피 걸어가는 젊은 여인의 뒷 모습. 간간히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채근한다. 젊은 날의 아야다. 그녀의 뒤를 건장한 남자가 따라가고 있다. 스모 선수의 상투를 쓴 젊은 날의 역도산이다. 약간의 사이를 두고 걸어가는 두 사람의 옆으로 빗꽃나무들이 가득하다.

아야: 장사. 걸음이 늦어요. 빨리요.

역도산: 이게 뭐하는 것이야. 정초도 아니구.

아야: 아니면 어때요? ... 어서요.

두 사람이 걸음을 멈추면, 신사의 제단 앞이다.

아야: 소원 빌어요. 우리.

역도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달갑지 않다는 표정으로 제단을 째려본다.

역도산: 아야. 남자의 꿈이란 말야, 이런 데다 빌어서 되는 게 아냐.

아야, 역도산의 말을 무시하고 제단을 향해 바르게 선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소원을 빈다. 역도산, 아야의 진지한 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손을 뺀다. 아야의 눈치를 보다 자신도 눈을 감는다. 늘 생각하는 꿈을 마음 속에서 불러낸다.

소리(아야): 장사는 요코즈나겠쥬?

눈을 뜨는 역도산. 주머니에다 손을 다시 찔러넣는다.

역도산: (장난스레) 아야. 몇 번 말해야 알아? 그냥 요코즈나가 아냐.

아야: 사상 최고의 요코즈나. ... 나도 알아요.

역도산: 당신이 알긴 뭘 알아? 아야는 뭐 빌었어?

아야: 글썄요. (투정하듯) 뭘 알아야 빌쥬.

이때, 아야의 눈에 공원에서 일하는 사진사가 보인다. 사진사를 손짓으로 부르는 아야.

아야: 저한테 같이 사진찍는 영광을 주실래요? 요코즈나.

피식 웃는 역도산. 하지만 싫지 않은 표정이다.

파인더에 보여지는 역도산과 아야의 모습.

어색한대로 자세를 잡는 역도산, 고개를 외로 끈 채 바지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넣은 불량스런 자세로 사진기를 쳐다본다. 아야가 그런 역도산의 팔짱을 낀다. 그런데 햇살이 역도산의 얼굴을 자꾸 찡그리게 만든다. 사진사가 그런 역도산에게 웃을 것을 권유한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을 외친다. 역도산,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강렬한 햇살 때문에 쉽지않다.

찰칵! ... 멈춘 사진 속의 역도산은 잔뜩 찡그린 얼굴로 비틀린 미소를 짓고 있다. 내일을 향해 웃고싶은 한 젊은이를 방해하는 것은 단지 햇살 만은 아닌 것 같다. 무엇이 그를 마음껏 웃지 못하게 했을까? 사진은 어딘지 슬퍼보인다.

두 사람의 사진이 점점 흑백으로 변한다.

실제 역도산의 장례행렬 다큐 필름과 함께 자막이 뜬다.

자막: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역도산은 재수술 끝에 복막염으로 숨졌다. 역도산이 죽은 한 달 후, 아야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역도산은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지녔다고 알려졌지만, 그의 사후엔 상속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남은 게 없었다.

끝.